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이청준 초기 단편소설의 인물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허 준 영

2015년 8월

# 이청준 초기 단편소설의 인물연구

지도교수 문 성 숙

허 준 영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6월

허준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년 6월

## 국 문 초 록

### 이청준 초기 단편소설의 인물연구

허 준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문 성 숙

이 연구는 이청준의 소설 「굴레」, 「보너스」, 「가학성 훈련」을 대상으로 작중인물을 가학하는 권력자와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로 유형을 나누어 연구하였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행해지는 권력자의 가학 형태는 대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침묵으로 나타난다. 권력자는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통제해 나간다. 자본관계에서 비롯되는 가학은 가정 안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자본은 새로운 계층을 만들고 세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의 부조리 현상을 작가는 소설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가 만든 거대한 권력집단의 권력 통제와 억압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은 여러 증세나 특징을 보인다. 부당한 가학을 느낄 때 피학의 주인공들은 오줌 마려움 증세, 도박 증세, 코 가려움 증세로 나타난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가학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책임이 무거울수록 권력의 횡포에 대항하지 못해 위축되고 억압받는다. 이러한 현상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물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 고찰되기를 바라는 작가 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에 따른 가학자와 피학자의 모습을 통해 현대 사회가 현대인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사 검토 .....	3
3. 연구 방법 .....	5
II. 이론적 배경 .....	7
III. 가학적인 권력자 .....	14
1. 규격화된 지배자 .....	14
2. 조작하는 감시자 .....	21
3. 직접적인 가학자 .....	28
1) 대물림된 가학 .....	29
2) 폭력적인 가학 .....	31
IV.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 .....	34
1. 금기를 깬 대항자 .....	34
2. 소외되는 안주자 .....	44
3. 희망의 도피자 .....	55
V. 결론 .....	63
참고문헌 .....	66
<Abstract> .....	68

# I. 서론

## 1. 연구 목적

이청준은 1965년 단편 「퇴원」이 사상계 신인작품 공모에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단하였다. 이후 40년 넘게 창작활동을 이어가며 작가적 면모를 정립해 나갔다. 2007년 병마와 싸우면서도 소설 한 편을 더 쓰고 싶다는 그의 소원대로 「그곳을 다시 잊어야 했다」까지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청준이 작품 활동을 시작한 1960년대는 6·25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4·19를 비롯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과 변화가 있었다. 작가 자신이 6·25, 4·19, 5·16 등의 역사를 체험함으로써 많은 작품 속에 그 시대상과 그 시대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잘 녹아 있다.

이청준은 초기작부터 중·단편과 장편을 통해 토속적인 민간신앙, 산업 사회의 인간 소외 문제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예술이 요구하는 장인정신, 지식인의 존재 해명 등의 주제를 다양하게 담아내고 있다. 문학은 시대마다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작가의 세계관에 따라 내용이 다양해지는데, 이청준의 소설 또한 예외가 아니다.

소설에서 인물들은 각각 현실과의 대응관계 속에서 일정한 상징적 성격을 가지고 동시에 작가의식과도 상응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작가에 의해 구성되는 소설의 제반 현상은 작중인물을 중심으로 형상화되기 때문이다. 작중인물은 다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소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중인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청준은 그가 살았던 당대 현실과 상황을 포괄하면서 그 속에 내재해 있는 인간의 진실을 구현해내고자 했다. 또한 전형적인 인물과 개성적인 인물을 창조함으로써 작중인물을 현실과 대응관계를 이루도록 했다. 작품이 작가의 세계관에 투영되어 당대 현실을 기반으로 창작될 때 작중인물은

상징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이청준 소설의 인물이 어떤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는지 사회의 상관성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청준 소설이 그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때 작가의 현실 인식 태도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소설의 인물은 작가의 의식과 상응관계에 놓여 상징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청준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열려 있는 정신을 통해서 문제적 상태를 소설로 형상화하려고 하였다.

소설은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예술이므로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층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작중인물은 작가의 내면적 의도나 사상을 작가의 의도로 인해서 현실과 정확한 대응관계를 이룬다. 그 결과 소설의 인물이 개인적 요소로써 사회적 요소를 표출하게 하여 사회현상을 거울처럼 나타내게 한다.<sup>1)</sup>

따라서 문학과 사회, 더 나아가 작가와 사회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작가가 살았던 당대의 역사와 함께 작가의 작품 속 인물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청준 소설의 작중인물들은 또한 각각 현실과의 대응관계 속에서 일정한 상징적 성격을 가지며 동시에 작가의식과도 밀접한 상응관계를 보여준다. 이청준이 어떤 소설가보다도 전형적인 인물과 개성적인 인물의 창조에 성공하고 있는 것도 이런 논리에 바탕을 둔다.

이청준은 한 시대의 경험이 추구하는 바를 작품 속에 담아내면서 열린 결말을 지향한 작가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청준은 한 시대의 경험을 통하여 그 시대가 추구해 나가야 하는 바를 소설에 담아내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의 소설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당대의 시대상황을 전형적으로 형상화한 이청준 소설의 인물유형을 파악하는데 있다. 작중인물은 서사를 이끄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작중인물이 없는 소설은 없으며 소설의 상황이나 사건도 인물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현대 소설의 특징 중 하나가 인간 탐구라는 점에서 인물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1) 미셸 제라파, 이동열 역, 『소설과 사회』, 문학과 지성사, 1977, p.54.

는 동일한 특징을 기준으로 인물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현대 인과의 상관성을 찾고자 한다.

연구 텍스트는 이청준의 작품 중 「굴레」(1966), 「보너스」(1969), 「가학성 훈련」(1970)으로 하고자 한다. 이런 소설들은 인물간의 대립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자본주의 체제를 배경으로 한 갈등양상을 보여주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리고 작품이 발표 된지 4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이 보이는 갈등양상을 전형적인 모습으로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2. 연구사 검토

이청준 소설의 인물유형 분석 연구에는 주로 정신분석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대의 아픔을 온 몸으로 흡수한 작중인물이 정상 범주를 넘어선 병적 인간형으로 나타나거나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한 상처받은 예술가 인간형이 등장하는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까닭에 작가의 많은 작품 중에 연구 대상이 되는 작품 수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특정 사건을 기반으로 한 작품 연구가 다수이므로 특정한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있어서 현대인의 시각에서 다수의 공감적인 삶의 모습을 담고 있지 못하다.

고귀옥<sup>2)</sup>은 이청준 소설의 작중인물의 정신병적 징후와 문학적 의미에 대한 연구로 「병신과 머저리」, 「황홀한 실종」, 「조만득 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영주<sup>3)</sup>도 「황홀한 실종」과 「조만득 씨」를 대상으로 정신분열증적 인물형을 분석하고 「시간의 문」과 「줄」을 대상으로 예

---

2) 고귀옥, 「이청준 소설의 작중인물의 정신병적 징후와 문학적 의미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3) 박영주, 「이청준 소설의 인물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술가적 인물형을 분석하고 있다.

고귀옥, 박영주의 연구는 소설의 인물 연구 대상이 정신이상자나 예술가로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 연구 대상의 작중인물들은 전형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인물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작가의식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인물의 특징이 명확하다. 하지만 작중인물들은 특별한 환경에 놓여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거나 이탈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인물을 통한 사회적인 고찰은 이루어지나 현시대와의 상관성은 낮게 나타난다.

고관섭<sup>4)</sup>, 이선미<sup>5)</sup>는 정신병적인 문제와 예술가적 유형의 전형적인 인물을 대상으로 권력의 주체자와 패배자로 인물유형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권력자의 형태와 권력 안에서 좌절하는 패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점을 인물유형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연구대상이 「소문의 벽」, 「황홀한 실종」, 「병신과 머저리」, 「조만득 씨」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인물의 특징은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거나 소외되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안홍현<sup>6)</sup>은 4·19와 5·16이라는 시대적인 사건을 통하여 폭력성을 가진 인물과 폭력의 피해자와 방관자로 인물유형을 나누어 연구하였다. 인물의 폭력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시대적인 사건으로 규명하여 보여줌으로 인물과 시대적인 상관성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병신과 머저리」, 「소문의 벽」, 「쓰여지지 않은 자서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작품 범위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경욱<sup>7)</sup>은 정신분열의 인물과 예술·종교적인 인물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구하였다. 「별을 보여드립니다」 외 15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물을 보여주지만 작품의 범위가 넓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인물간의

4) 고관섭, 「이청준 소설의 작중인물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5) 이선미, 「이청준 소설의 인물유형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6) 안홍현, 「이청준 소설의 인물유형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7) 이경욱, 「이청준 소설의 인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상관성이 낮다. 또한 정신분열을 보이는 인물의 원인을 과거로부터 찾고자 함으로 현시점과의 상관성에서 원인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청준의 소설에서는 ‘억압하는 현실’에 ‘상처받은 개인’이 외부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소외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를 이탈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상처를 안고 가는 소시민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시민적 인물들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청준의 초기 단편소설 중 그동안 연구 대상이 되지 않은 작품을 고찰하되, 작중인물의 유형도 정신병적인 유형이나 예술가형 유형이 아닌, 자본주의 체제 속의 일반적인 인물유형을 찾아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현대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배경으로 일상적인 작중인물이 겪는 갈등양상을 탐구할 것이다.

또 일상의 환경에 놓인 인간형이 안고 있는 현대인의 아픔과 문제점을 작중인물과 시대와의 상관관계 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청준 소설의 인물이해의 범위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굴레」, 「보너스」, 「가학성 훈련」을 대상으로 인물 행위 묘사에 따른 인물의 특징을 분석하고 작가의 인물 창조 의의를 찾을 것이다. 작품 속에서 작중인물들의 특정상황에 따른 행동양식과 대화의 분석을 통해 인물 연구에 주목할 것이다.

각각의 인물이 시대상황 속에서 점유하는 사회적 지위를 분석함으로써 크게 두 가지 인물을 유형화 할 것이다. 인물의 특성과 그 인물이 시대상황 속에서 점유하는 사회적 지위는 권력자(억압하는 자)와 약자(억압당하는 자)의 관점에서 고찰하게 될 것이다.

작중인물은 이청준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창조되고, 작가의 삶을 담음과

동시에 시대적인 인물의 모습을 담고 있음을 전제로 할 것이다. 또한 설정한 관계에 따라 소설 속에서 맺는 상관관계를 통해 인물의 행위에 초점을 두어 인물의 특징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 이청준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찾고 인물 유형이 소설 속에서 맺는 상관관계와 특징을 통해 당대와 현대의 사회적 의미와 관련지어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청준의 세계관을 통해 작중인물에 담긴 시대상을 읽고 왜 이러한 인물이 창조되었는지를 고찰하고 소설의 작중인물이 오늘날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자아와 현실세계와의 갈등을 보여주는 개인이 현실의 모순에 순응하거나 이탈하지 않고 극복하려고 대결하는 인간상을 유형적 관점에서 탐색하게 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모든 이야기 문학에는 반드시 인물이 등장하는데, 상황이나 사건은 인물에 의해서 주도된다. 소설은 일반적으로 특정 인물의 삶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설 형식은 일반적인 삶의 형상화로부터 나오고 인물 없이는 소설양식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sup>8)</sup> 특히 현대소설의 특징이 인간탐구, 즉 새로운 인물의 창조에 있다고 할 때 인물 논의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루카치가 『소설의 이론』에서 주 인물의 전기적 형식이 소설의 구성적 형식이라고<sup>9)</sup> 한 것도 인물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인물연구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행동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연구한다고 해도 인물의 행동과 사건의 주체가 인물이기 때문에 인물연구를 근본적으로 제외할 수 없다. 소설은 특정한 인물의 삶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그 형식은 일반적으로 삶의 형상화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인물 없는 소설 양식이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작가는 소설의 현실을 더욱 진실하게 표현하고자 재창조와 재해석을 통해 추상화한다. 작가의 의도대로 작중인물은 외면과 내면의 묘사로 창조되고 행동의 주체가 되어 주제와의 상관성을 가진다. 새로운 인물의 창조는 새로운 소설의 창조를 말하고 소설의 인물을 통해 이야기 구조가 만들어진다. 작중인물은 사회구조 속에서 다른 인물들과 상호관계를 맺고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실재하는 것처럼 묘사된다.

인물 창조 방법으로는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서술하거나, 사건과 행위의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있다. 직접 서술에는 ‘말하기’의 방법이나 직접적 성격묘사가 있고 작가가 해당 인물을 직접 설명하는 방법 외에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을 설명하는 방법과 인물이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보여주기’가 있다는데 이는 간접적 성격묘사로 나타난다.<sup>10)</sup> 묘사의 방법으로는 내면 묘사와 외면 묘사가 있다. 내면 묘사는

8) 조남현, 『소설신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237.

9) 게오르크 루카치,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5, p.97.

기분, 심리, 잠재적 의식과 같은 요소로 인물의 성격을 형성하고 외면 묘사는 행동, 대화, 말씨, 표정, 외모, 복장 등이 있다.

주요인물과 소인물의 묘사 방법은 다르게 나타난다. 주요인물은 복합적이거나 입체적인 방법으로 부각되게 그려짐으로 타나나고 소인물은 주요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한 보조 인물로 평면적으로 묘사된다. 무엇보다 작가가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보다 깊게 통찰할 때 개성 있는 인물을 창조할 수 있다.

작중인물은 현실 삶의 실제 주변인물을 모방하는 경우와 작가의 의도대로 창조되는 경우가 있다. 또 작가 자신이 모델이 되어 자신의 자화상을 소설의 인물로 창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도 작가의 의도에 따라 창조되고 있는 경우라고 보고 있다. 결국 소설의 작중인물은 작가의 경험을 통해 다룰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작가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소설로 그려낼 경우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sup>11)</sup> 그러므로 작가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작중인물이 창조된다고 볼 수 있다.

포스터는 작중인물이란 실제인물을 작품에 옮겨놓은 것이라고 본다. 즉 작중인물 유형은 실제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의학, 심리학, 사회학에서 꾸준히 시도해 온 인간 유형론은 작중인물을 대상으로 한다.<sup>12)</sup> 인간유형론은 작가가 인물을 창조할 때 학문적으로 연구된 인간유형론을 참고하여 인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작품 속에 나타난 주인공들을 분석하여 일정한 유형이 특징별로 분류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심리학자 레이먼드 카텔은 인간을 대상으로 생애기록, 자기평가, 객관적 검사 등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요인 분석하여 16개의 성격의 근원 특질을 추출하였는데, 16가지 성격요인은 다음과 같다.<sup>13)</sup>

내성적인/외향적인, 머리가 나쁜/머리가 좋은, 안정적이고 자아가 강한/정서적이고 신경증적인, 겸손한/주장이 강한, 근실한/태평스러운, 편의주의적인/진지

---

10) 조남현, 앞의 책, p.264.

11) 조남현, 위의 책, p.243.

12) 조남현, 위의 책, p.247.

13) 조남현, 위의 책, p.248.

한, 수줍은/대담한, 마음이 강한/마음이 약한, 잘 믿는/의심 많은, 실제적인/상상력이 풍부한, 솔직한/약삭빠른, 차분한/걱정 많은, 보수적인/실험적인, 집단의 존적인/자기충족적인, 제멋대로인/억제된, 이완된/긴장된 (『소설신론』, p.249.)

또한 소설의 인물 분석에 사용되는 정신분석학의 전문용어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쾌락을 갖는 ‘새디즘’, 지나칠 경우 오히려 신경질과 우울증을 불러일으키는 ‘건강염려증’, 고소공포증, 동물공포증, 대인공포증 등과 같은 예를 보이는 ‘공포증’, 단순한 훔쳐보기 보다는 이상심리를 더 잘 드러내는 ‘관음증’ 자기성취감이나 자부심이 지나친 나머지 병적 상태를 보이는 상태와 이드의 세계에서 특별히 성적 욕망을 가리키는 ‘리비도’, 과대망상증의 일종으로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유행에 따르기를 좋아하는 경향을 나타내곤 하는 ‘마치 ~인양하는 성격’, 정상적 자기도취와 병적 자기도취로 나뉘는 ‘나르시시즘’, 우울증이나 조증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 둘 사이를 오가는 ‘정서장애’, 불안감, 외상, 질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심신상의 요인들에 의해 빚어지는 ‘퇴행’ 등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sup>14)</sup>

현대인들은 다양한 주변의 환경으로 과거보다 더욱 복잡하게 얽힌 삶의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 그에 따라 현대인은 보다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노이로제나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복잡한 삶의 구조에서 오는 다양한 인간관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궁핍과 결여로 인해 콤플렉스를 가지게 된다. 이는 모두 신경증 증세로 인격의 한 부분에 오는 문제로 어떤 대상에 보이는 의식이나 공포증적 신경증세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에서 온다. 오늘날 많은 작품들은 이러한 환경에 놓인 현대인들을 소설의 인물로 그리고 있다.

미국정신분석학회 편 《정신분석용어사전》에서는 생각이나 감정을 억누르거나 의식 바깥으로 쫓아내거나 망각하는 기제를 가리켜 ‘억압’<sup>15)</sup>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인공들이 외부로부터 받고 있는 억압에

14) 조남현, 위의 책, p.253.

15) 조남현, 위의 책, p.250.

따른 심리양상과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 인물을 연구할 것이다.

정신분석학적 인물연구를 살펴보면 인물을 단순한 텍스트로 파악할 수 없다.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이는 인물은 심리적 방어기제를 보인다. 예를 들면 신경증을 앓는 환자 중 히스테리 환자는 억압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들은 억압요소를 의식에서 제거하여 무의식과 망각 무관심으로 자기 방어를 한다. 이는 이 연구의 권력자 유형의 인물이 보이는 특징과 유사하다. 가학할 때 상대에게 억압을 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유형으로 현실 외면 무관심으로 대처하고 있다.

강박증 환자는 고립을 통해 자기 방어를 하는데 부조리한 행동들이 보일 때 발생하는 갈등상황의 불안으로 사건의 전후 사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자 한다. 이는 이 연구의 사회적 약자가 보이는 증세와 유사하다. 사회적 약자는 권력의 횡포로부터 억압을 받을 때 인물마다 각자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심리적 요소인 불안은 병적인 현상에 나타나고 초기적 행동으로는 특정한 증세가 동반된다. 불안은 출현, 그 자체를 넘어서는 경험의 형태<sup>16)</sup>로 개인의 내면 심리에서 시작하여 내부로부터의 이해를 요구하고 나아가 확장되어 사회구조적인 이해를 요구한다. 이는 이 연구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가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안을 느낄 때 초기적 행동으로 일정한 증세를 나타나 보이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불안에 대한 고찰은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권력자는 약자의 불안에 대한 고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음으로 이해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소설의 인물은 사회적인 안목으로도 분류된다. 심리학이 개인 혹은 개인회귀 현상을 중시하는 반면, 사회학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주목한다.<sup>17)</sup> 사회학에서 인물은 신분, 계층, 계급으로 분류되는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계급보다 계층적으로 인물을 분류한다. 계층의 구분 기준은 재산, 소득, 직업, 학력 등이 있다.

푸코는 권력과 지식은 상호 직접 관여를 하는 관계로 어떤 지식의 영역

16) 미셸 푸코, 『정신병과 심리학』, 문학동네, 2002, p.79.

17) 조남현, 앞의 책, p.253.

과의 상관관계가 조성되지 않으면 권력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력과 지식의 관계는 권력 제도와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도 있고,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 권력에 유익한 지식이든 불복종하는 지식이든 간에 하나의 지식을 창출하는 것은 인식 주체의 활동이 아니라 권력-지식의 상관관계를 맺는다고<sup>18)</sup> 한다. 이 연구의 권력자와 약자의 관계도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나타나 보이고 있다. 권력자는 권력을 소유하기보다는 지식을 통제하는 입장으로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 즉 지식은 권력의 통제 아래에 놓임을 보여준다. 권력이 지식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약자가 지식을 소유한다고 해도 지식의 주체는 권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권력자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권력자의 약자에 대한 통제는 구속력을 가지고 구속은 습관이 되어서 무의식에도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권력의 통제는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 권력집단이 만들어 낸 규율이나 규칙은 개인을 제조한다. 이것은 개인을 권력 행사의 객체와 도구로 간주하는 권력의 특정한 기술이다.<sup>19)</sup> 권력자는 약자를 영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조심성 있고 의심 많게 행동한다. 또 규칙을 근간으로 하는 권력은 단순한 수단을 사용하는 듯이 보이지만 위계질서적인 감시의 눈빛, 규범화된 상벌제도, 권력의 특유한 방식인 시험을 통하여 자신들의 세력에 약자들을 결합시켜 나간다. 이러한 권력의 움직임은 「굴레」와 「보너스」, 「가학성 훈련」에도 보인다.

권력은 다양하고 상호 교차적인 감시 기술을 통해 약자를 통제해 나가고,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아야 하는 시선의 기술로 약자를 감시한다. 또한 권력이 만든 규칙은 여러 관계로 움직이는 권력을 통제하고, 계산된 움직임을 보인다. 「굴레」에서는 권력의 주체가 되는 M일보사 측이 역할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계산된 움직임을 습득하게 하고 역할모델을 통해 수험생들을 감시함으로써 약자를 통제하고 있다. 「보너스」에서는 권력의 통제가 심화되어 구성원끼리 감시체제를 이룬다. 「가학성 훈련」은

---

18) 미셸 푸코, 앞의 책, p.59.

19) 미셸 푸코, 위의 책, p.268.

권력자와 약자의 직접적인 만남에 의한 권력의 통제와 감시의 모습이 나타난다.

권력자는 자신들이 제시한 역할모델을 소속되는 약자들이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복종이나 순종과 규율과 규칙에 대한 철저한 실천을 강요한다. 그러기 위해서 약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벌을 한다. 역할모델을 제시하는 이유는 권력에 소속되는 약자들이 비슷한 모습을 갖출 때 통제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칙 중심적인 권력 체제의 처벌은 속죄나 반성을 목표로 하지도 않고 억압을 목표로 삼지도 않는다. 단지, 약자들을 규격화하여 통제를 하기 위함이다.

처벌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섯 가지<sup>20)</sup>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개인의 행동, 성적, 품행을 비교의 영역으로 차등화하고 동시에 준수해야 할 규칙의 원리에 전체 체계를 결부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개개인을 상호 비교하여 총체적 규칙에 의거하여 구별한다. 셋째는 개인의 능력, 수준, 성질을 양으로 측정하고 가치로 등급을 매기는 일이다. 넷째는 가치를 평가하는 이러한 측정을 통해서 실현해야 할 어떤 일체성의 제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끝으로 비정상적인 외적인 경계를 규정지을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규칙 중심적인 제도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고 매순간 통제하는 상설적인 처벌제도와 비교하여 구분하고 서열화하고 동질화하고 배제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규격화로 요약된다.

위에서 말하는 규격화는 단계성을 보인다. 이는 「굴레」에서 「보너스」로 「보너스」에서 「가학성 훈련」의 순서로 특징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이 순서를 살펴보면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에 따라 권력의 처벌의 기술에 받는 영향력 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사회적인 지위가 뚜렷할수록 관계 맺음으로 권력관계가 확실할수록 강하게 권력의 통제 아래에 놓임을 알 수 있다.

논문의 대상이 되는 이청준의 소설은 주로 대화나 인물의 내면을 밝히는 전지적 시점에서 직접적인 묘사를 통해 작중인물을 나타내고 있다.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성격 지표는 반드시 하나의 특성

---

20) 미셸 푸코, 위의 책, p.287.

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며 몇 가지 특성의 공존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 분류 항목이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인의 정신과 사회관계는 긴밀성을 가지고 있다. 권력자는 사회의 상위 지위를 차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통제한다. 사회적 약자는 권력의 가학으로 인해 정신적인 문제를 겪게 된다. 이 연구는 정신·심리학적 안목과 사회학적 안목을 아우르며 작중인물을 연구할 것이다.

### Ⅲ. 가학적인 권력자

「굴레」, 「보너스」, 「가학성 훈련」은 인물들이 맺고 있는 수직적인 관계를 권력자의 가학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권력자는 사회적인 약자를 자신들의 규칙으로 통제하고 진실하지 못한 관계를 통해 상·하 질서를 유지한다. 권력 아래 통제 받는 약자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폭력이 아닌 진실하지 못한 관계로부터 인간성이 훼손되어 가학 받는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에서 보이는 가학하는 권력자의 모습을 유형에 따라 살펴보았다.

#### 1. 규격화된 지배자

소설 「굴레」는 M일보사의 견습기자 모집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채용 과정에 얽힌 이야기이다.

M일보사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초년생들에게 사회로 나가기 위한 관문이다. 모집 인원 약간 명을 놓고 1천 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몰린다. 언론사라고 하는 곳은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에서 M일보사는 상당한 편견을 드러낸다.

“이 신문산 X지방 출신은 뽑지 않는다는데, 어찌 돈 자량이 그 따위로 줄릴할 수 있으리.” (『이청준 문학전집3』, p.12.)

X지방 출신은 뽑지 않는다는 M일보사의 부당한 입사 기준에 대해 직접적으로 ‘줄릴하다’는 평가를 보인다. 실제 소설 속 M신문사 인사과에서

일하는 선배의 말에서 그 실상은 뚜렷해지며, 이 소설의 주된 줄거리가 된다.

결국 다음 날, 나는 M일보사 인사기획실에 있다고 들은 한 선배를 찾아 나섰다. 자존심 같은 건 기왕에 구겨놓은 터였다. 그냥 앉아서 바보가 된다는 생각, 어쩌면 정말 내 차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은총을 내 쪽에서 지레 외면하고 있거나 않은지, 그냥 집에만 들어박혀 있기가 좀이 쑤서댄 때문이었다.

“왜 하필 여길 치었어?”

선배는 대뜸 힐책부터 하고 들었다.

“섭섭한 얘기지만 안 될 걸로 생각해 두는 게 좋을 거야. 불문을 같은 게 있지. X지방 출신과 아버지가 생존해 있지 않은 사람은 첫 번째로 제외되고 있어. 뭐 그런 사칙(社則)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책, pp.22~23.)

‘사칙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입사의 문턱은 공식적인 입사조항은 아니다. 하지만 암암리에 X지방 출신은 뽑지 않는다는 말을 주인공의 선배는 확실하게 표현한다.

이청준이 소설 「굴레」를 발표한 때가 1966년이다. 1960년 4·19혁명으로 민주화를 꿈꾸던 학생들과 시민들에게는 이승만 정권은 물러갔으나 1961년 5·16으로 인해 박정희 군사정권이 집권하게 되고 유신정권이 이어진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정권과 경제가 함께 이루어나가며 기업도 정권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언론도 정권의 억압 속에 놓여있으며, 지역주의에 치우친 시대상을 소설 「굴레」를 통해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학 작품에서 인물의 행동이나 성격은 나름대로 작가의 의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거나 암시적으로 주체와 긴밀한 연관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

1960년대 정치적 상황은 그 시대 작가들에게 ‘뿌리 뽑힌 자’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고 그 결과 가난한 노동자들과 영세민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한다. 이 때 ‘뿌리 뽑힌 자’는 물질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소외현상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청준은

시대를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뿌리 뽑힌 자’가 되어 직접 체험하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이청준은 많은 작품 속에 시대를 담아내고 있다. 그 이유는 작가 이청준이 살았던 삶이 바로 시대의 대표적인 아픔의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청준은 전라도 장흥 출신이다. 가난으로 인한 탈향과, 출신 지역에 대한 사회적인 부당함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인 문제점과 인간소외 현상의 도래를 지켜보았다. 때문에 작품 속의 인물들에는 작가의 안목과 본인의 회고가 담겨 있다.

작가들은 이처럼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생각되는 인물을 모델로 하여 작중인물을 설정한다. 작가의 출신지역과 작품이 담고 있는 시대상에 비추어 이청준은 작품을 통해 시대를 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문대로였다. 하지만 편모 사유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소리였다.

“아버지가 없으면 취직을 안 해도 좋은 무슨 보장이 있답디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순종의 미덕이 없고, 역심(逆心)이 많다더군. 사고를 큼직하게 저지르는 측은 대개 그쪽이고…… 한 마디로 부리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리고……”

선배는 더 말하고 싶지 않은 듯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침착하고 평온한 태도였다. (같은 책, p.22.)

X지방 출신 사람을 뽑지 않는 것에 더하여, 아버지가 없는 사람도 뽑지 않는다는 입사조건을 내세운 이유는 순종의 미덕과 역심 없는 자를 뽑기 위해서이다. 인사과 선배의 말을 통해서 이 시대의 언론사마저도 목소리를 내는 쪽보다는 권력에 순종하여 부리기 쉬운 신입사원을 뽑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X지방이 아닌 동시에 편모슬하에 있는 사람이 순종의 미덕과 역심이 없는 자인가를 확인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가학되는 권력의 억압 또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 하지만 이 채용조건을 제시하며 진리를 말하는 사람처럼 침착하고 평온한 선배의 태도에서 권력에 순응하

여 얻은 안정감과 권력과 타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실의 빛은 꺾이지 않는다는 경구가 언론인의 좌우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문사의 채용시험에서부터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

“뽑히기 좋은 조건이란 건 말 안 해도 알겠지?”

선배는 조용히 웃었다. 자기로서는 내게 힘이 되어줄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곤 내 경우라면 면접시험을 보지 않는 게 그 중 현명한 선택이 될 듯싶다고 조심스럽게 귀띔해 주었다. 「한국의 기업 양심과 매판 자본」이란 졸업논문을 쓰고 입사한 어떤 친구는 그 논문 가운데서 M일보사를 지목하는 문구가 뒤늦게 발견되어 결국엔 자진퇴사 형식으로 체풀에 회사를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일이 그렇게 되기까지 회사에선 그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주면서 일은 주지 않고, 다만 그 몇 달간 회사 업무 시간에 자기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척을 엄격하게 지키게 했을 뿐 이었다고.

“경우는 다르지만, 가령 합격을 한다 해도 보직은 좋지 않구……정 서운 하거든 면접을 가서 괜히 굶실거리지 말고 시원한 소리나 뱉어주는 게 차라리 뒷맛이 나올 거야.” (같은 책, p.23.)

신문사는 X지방출신과 편모자녀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원은 원하지 않고 있다. 권력집단의 억압은 더 이상 예전처럼 ‘드러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아니다. ‘무언의 압력’을 통해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가게 하는 것. ‘보이지 않는 손’이 더욱 무서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권력의 횡포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권력 집단은 암암리에 자신들의 기준을 만들어 X지방 출신과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준을 무기인양 꼬박꼬박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에는 구실을 하지 못했던 사척이 지식인을 퇴사시킬 때에는 제 구실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작가는 거대한 조직의 권력 악용을 보여주고 있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M일보사 인사과 선배 또한 권력집단의 횡포에 젖어 있는 소속인으로 부끄러워야 할 현실을 진리인양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누구보다 부끄러워야 할 지식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통해 불공정함을 바로잡을 생각은 고사하고, 사회에 발을 새롭게 내딛을 준비를 하는 후배에게 차라리 굽실거리지 말고 시원한 소리나 뱉어주는 게 뒷맛이 나올 거라는 이중적인 충고를 한다. 자신의 처지가 아니어도, 부당함을 보았을 때 착한 사마리아인의 양심이라면 돕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기득권을 권선배는 타인의 처지에서 시원한 소리를 내뱉고 속이라도 풀라고 말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산업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자신의 일이 아닐 때 용감함을 부추길 수 있는 행동은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충동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정작 본인 일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음) 경각심을 일으키고 손해를 본 사람의 행위를 통해 사회적 이득을 취하는 현상이다. 부당함에 대항한 사람은 용기를 내어 사회에 투항하기도 하지만 부추긴 쪽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도모한다. 「굴레」에서는 선후배 사이를 통해 함께 공감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나갔던 과거의 대인관계 문화는 없어지고 이미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이 소외되어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필기시험 때에는 서로가 농담을 주고받았다. X지방 출신은 뽑지 않는다는 X지방 출신 수험생의 목소리에 또 다른 지방 출신 지원자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라고 우스갯소리로 답을 하는 모습에서 지역차별 현상이 한 시대의 모습만은 아님을 알 수 있는 뼈 있는 대화 내용이다. 하지만 지역주의 감정을 어린아이들의 싸움과 같이 별 게 아닌 감정으로 승화시키는 해학적이고 호탕함을 볼 수 있다. 이는 불우한 시대를 살았던 이청준이 시대를 끌어안고자 한 작은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분위기가 필기시험 때와는 전혀 판판이었다. 면접은 제1, 제2 두 곳을 거치게 되어 있었다. 머리에 아직 빗살 자국이 남아 있는 빨간 넥타이의 사내가 정중한 말씨로 면접 요령을 설명했다. 사내는 여간 자신에 차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낼 수 없는 정중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정중한 말씨를 쓰는 사람들이란 대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해올 틈을 주지 않았다. 사내가

넥타이에 관해 주의를 할 때 수험생들은 넥타이로 손을 가져갔다. 머리를 주의할 때에는 일제히 제 머리들을 매만졌다. 아무도 전번처럼 표정이 없었다. 가만히 심호흡을 해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왼쪽 가슴에 붙인 수험표가 비뚤어졌을세라 거북스레 머리를 숙여 가슴팍을 내려다보고 또 보고 하는 친구도 있었다.

사내의 주위가 끝나고 나서는 가끔 조심스런 잔기침 소리가 들릴 뿐, 대기실 안은 귓속말을 주고받는 소리조차 없었다. 그 기침 소리조차도 학교에서 애국가 봉창이 있기 전에 늘상 들을 수 있는 그런 헛기침 소리여서, 긴장한 대기실 안을 더욱 긴장시켰다. 벨소리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씩 각기 신상 카드를 들고 제1면접실로 사라져 들어갔다. 남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출입문을 쳐다보고 앉아 있었다. (같은 책, p.24.)

접근해 올 틈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정중한 말씨를 구사하는 빨간 넥타이 사내의 등장은 수험생들을 일제히 침묵시키고 사내의 행동 하나하나를 수험생들은 따라하며 넥타이와 머리를 매만진다. 이는 권력자가 빈틈없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가학자가 피학자의 무기력해진 틈을 통제해 나가는 새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빨간 넥타이 사내가 마치 M일보사가 제시한 역할 모델인 양 따라하게 되는 것이다.

신문사의 빈틈없는 권력 앞에 커뮤니케이션을 제약 당하고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받으며 권력에 통제 받은 채로 면접을 보러 가는 수험생의 모습이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내의 행동을 따라하는 면접 수험생들의 모습을 통해 권력 앞에 통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수험생일 때부터 이미 제시된 역할 모델을 따라 대량생산되고 있는 M일보사 사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빈틈없어 보이는 빨간 넥타이의 사내이는 마치 거대한 신문사 건물처럼 수험생들에게는 불가항력의 권력처럼 거대한 존재로 다가온다.

M일보사의 거대한 빌딩이 갑자기 큰 괴물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앞에 너무나 작았다. 옥설을 퍼부어도 이 괴물의 귀에는 도무지 들리질 않고, 더구나 성깔 따위를 드러낼 것 같지는 않았다. 옥설을 쏟을수록 자신만 더 화가 날 게

뻘했다. (같은 책, p.25.)

M일보사의 거대한 빌딩이 주인공에게 권력의 위압감이 되어 큰 괴물처럼 다가오게 된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너무나 작아진 주인공은 아무리 시대적 양심의 목소리를 높일지라도 변화할 여지가 없는 권력을 괴물로 형상화하게 된다. 소통이 불가능한 거대한 빌딩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로 움직이고 결코 남과 타협하지 않는다. 귀가 없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 아무리 이성적, 논리적으로 대화와 답을 기대하는 자가 어리석음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거대한 빌딩은 애초에 귀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괴물로 인해 수험생들은 억압받게 된다. 괴물에 위협받는 수험생들은 목소리를 삼키게 되고 괴물이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 안전을 보장 받는 쪽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작가가 표현하고 있는 거대한 괴물과 수험생의 관계는 60년대를 지나 오늘날 사회로도 이어지고 있다.

젊은 친구가 뭐라고 하려는 눈치였으나, 가운데의 사내가 눈짓으로 그를 막았다. (중략)

가운데 사내의 얼굴엔 아무 표정이 없었다. 이 작자들을 정말 화가 나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나가시오.”

젊은 친구의 씯소리 같은 음성이었다. 나는 일어섰다. 신상 카드를 집어들고 잠시 머뭇거렸다. (같은 책, p.33.)

면접 도중 주인공이 면접관에게 부당함에 대해 도발적인 답을 했을 때 젊은 면접관은 무례함에 대응하려고 하지만 가운데 사내가 눈짓으로 젊은 친구를 제지한다. 타협 없는 거절의 가장 잔인한 방법은 침묵이다. 침묵은 조절할 필요도 설득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앞서 선배가 주인공에게 M일보사 사칙에 대해 진리처럼 말할 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는 표현과 일맥상통한다.

권력이 무기력한 자에게 가학할 때에는 더 이상 보이는 폭력의 형상이

아니다. 누구보다 예의를 갖추되 대화의 타협점을 두지 않는다. 거대한 괴물 형상 또한 그 앞에 존재하는 작고 초라한 주인공의 말을 듣지 못할 만큼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괴물이 주변 환경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거대함은 단지 작은 것에게 상대적 빈곤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학적이다. 거대한 조직체 권력 앞에서 주인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무언의 가학 형상으로 다가와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가학은 곧 피학자에 의해 물리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주인공의 오줌 마려움 증세가 그 예이다.

M일보사의 시험관은 과거 신분제에서부터 의식되어 온 전형적인 가학자의 모습에서 변화한 모습을 보인다. 직접적으로 가학하던 권력자의 모습에서 간접적으로 가학하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직접 가학만이 권력자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 가학은 정신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므로 좀 더 쉬운 질서유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예가 억압된 대상자에게 역할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따라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굴레」가 발표된 1960년대 보다 오늘날의 전형적인 가학자의 모습으로 보인다. M일보사 거대한 빌딩은 자본을 주축으로 세워진 조직체의 형상으로 작가가 바라본 지식인에 대한 새로운 가학적인 권력의 모습인 것이다.

역할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권력에 소속되는 약자들을 규격화하고 통제하고 있는 M일보사 시험관들은 실상 자신들이 지배자의 모습에 규격화되어 있다. 제시된 모델을 따라 권력의 규칙에 규격화되는 사람은 거대한 빌딩의 소속이 되어 조직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 2. 조작하는 감시자

소설 「보너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잡지사의 보너스에 얽힌 이야기이다. 사장이 보너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가운데 회사 내에는

보너스에 대한 소문이 돈다. 직원들은 보너스를 기대하며 퇴근시간이 가까울수록 초조히 기다리지만 보너스를 받는 직원은 없다. 소설은 보너스 이야기를 통해서 권력의 상징인 사장이 직원들을 억압,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굴레」의 M일보사 면접관은 아직 권력에 소속되지 못한 취업 준비생들의 면접을 보고 있지만, 「보너스」의 사장은 자신의 권력 안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을 대하게 된다. 입장의 차이에 따라 가해지는 억압의 정도도 달라지겠지만, 억압에 대처하는 방법도 관계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된다. 「굴레」의 주인공은 취업 면접을 보고 있지만, 「보너스」의 주인공은 이미 직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인물들을 분석해 본다면 이청준 소설의 가학과 피학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소설 「보너스」의 사장을 통해서 「굴레」에서보다 직접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지만 대상을 억압하는 침묵의 가학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12시 반에 점심을 먹으러 나갔던 직원들이 3시가 넘어서야 하나 들썩 편집실로 돌아왔다. 자리가 대강 메워진 것은 거의 4시가 다 되어서였다. 다른 때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야근 많고 퇴근 시각 일정치 않은 회사가 으레 그렇듯 이 잡지사도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 관리는 어디 못지않게 엄격했다. 어느 날 같으면 오늘 아침도 사장이 서무계 앞에 놓인 출근부를 정시에 회수해 가버렸을 것은 물론, 점심시간에도 꼭 1분이 지난 1시 31분에는 사장실 도어를 열고 편집실로 나와 나중에 들어오는 친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서 있었을 것이다. 으레 사장은 그러고 나서야 점심을 먹으러 나갔으니까. 그렇다고 사장이 지각자들을 불러 세워 꾸짖는 일 따위는 없었다. 생각을 모아뒀다가 회의석상 같은 데서 근무시간을 엄수하라고 넌지시 주의를 환기시켜 오는 일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장이 취하는 거동새는, 사장실을 나가는 길에 사무실을 한번 둘러보다 때 마침 문을 들어서면 직원과 마주친 듯 묵연해 보이는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편집실 직원들은 사장의 그런 거동을 누구 한 사람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았다. 출근 시간에는 누구나 사장을 생각

하며 출근부가 사라지기 전에 도장을 찍으러 서둘렀고, 점심시간이 끝나서는 혼자 사장의 시선을 견디게 되지 않으려 애썼다. 모두들 말없이 사장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그것은 내가 이 잡지사 오기 전부터도 그렇게 되어 있던 일이었다. (같은 책, pp.35~36)

사장은 출근부를 기록하게 하거나 지켜볼 뿐 지각자들을 불러 세워 꾸짖지는 않는다. 하지만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억압에 시달린다. 이 억압은 통제 수단이 되어 편집실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굴레」의 빨간 넥타이 사내의 출현에서 보인 M일보사의 태도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입사 기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의례적으로 있어 온 암묵적 입사 기준이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기준은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통제 수단이 되어 있다.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수험생에게 가해지는 억압도 입사 후에는 더욱 강한 굴레가 되어 회사의 질서를 이루는 수단이 된다. 「굴레」에서 수험생들을 통제한 수단은 많은 말이나 행위가 아니라 침묵이었다. 「보너스」의 사장도 말이나 행위가 아니라 침묵으로 질서를 만들어간다. 침묵의 통제 현상은 「굴레」의 M일보사나 「보너스」의 사장이나 모두 지식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보너스」에서 직원들은 여느 날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조금만 늦어도 안절부절못하던 사무실 직원들이 그날만큼은 느장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직원들에게 억압을 가하고 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말뿐 아니라 표정들도 없었다. 아니 한 가지 표정이 있다면, 그건 자리에 앉아 있건 어슬렁거리고 있건 창밖을 내다보고 있건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빠져 있건 하나같이 어떤 이유를 지니려고 애들을 쓰고 있는 것이었다. 여유- 그것이 적당한 말이다. 6시 퇴근 시각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6시에 희망이 있는 것이다. (중략)

그래 이들은 스스로 여유를 지니려 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웬

일인지 정작 그 6시에 해답을 줘야 할 당사자인 사장은 코끝조차 내밀지 않고 있었다. 시간은 그 어두컴컴한 사무실에 깊은 초조와 불안기를 뿌리면서 그 6시를 향해 바작바작 다가들어 가고 있었다. (같은 책, pp. 36~37.)

잡지사 내에 보너스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을 때 사장이 이 소문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보너스가 예정에 없다면 미리 공지하고 직원들이 기다리지 않게 하면 좋을 것을, 사장은 아무런 말이 없다. 이로 인해서 직원들은 더욱 초조한 마음으로 보너스를 기다리게 된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직원들은 회사의 가학 아래에 놓이게 된다. 주인공은 사장의 이러한 태도가 계획적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한 조직 내에서 침묵으로 가해지는 억압이 통제에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소문의 진원은 드러나질 않았고, 사원들에게 희망과 실망을 판 가름해 줄 사장은 그런 소문을 전혀 모른 체했다. 어쩌면 사장은 그렇게 여러 가지 소문을 번갈아 퍼뜨려 직원들이 갈팡질팡 눈치만 보다가 중국에는 제풀에 지쳐 빠지게 하려는 속셈인지도 몰랐다. (같은 책, p.38.)

「보너스」의 주인공도 「굴레」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신용하지 않고 가학의 대상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권력자가 일정한 가학을 가함으로 피학자를 통제해나가는 훈련과도 같다. 조금씩 가해지는 가학으로 오히려 불만을 통제해 나가고 있다. 기대감과 좌절감의 반복은 기대감을 가지기 이전 상태에 대한 만족감을 준다는 논리로 사장은 기대와 좌절을 반복하는 직원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굴레」에서 입사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합격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신문사에 잘 보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것처럼 「보너스」에서도 보너스를 받기 위해 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누구 하나 보너스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를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를 사장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 자명한데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의도적인 가학이다. 신분제도가 있었을 때 나타나는 직접적인 가학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조직 내 상하 관계에 따라오는 간접적인 침묵의 가학이다. 간접적이고 침묵적인 가학의 책임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회피하기에 유용하다. 「굴레」와 마찬가지로 어떤 물리적인 행위 없이 침묵으로 가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체의 질서를 만들어 나감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된다.

「굴레」에서 X지방 출신과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뽑지 않는 입사 기준이 사칙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으로 뽑지 않아 온 것은 회사 인사과 직원의 증언으로 확실한 일이다. 하지만 누군가 항의한다고 해서 명확한 증거로 내세울 만한 것은 없다. 증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가학의 모습이다.

이는 「보너스」에서도 이어진다. 보너스를 준다는 것은 사칙에 없는 의례적인 일이다. 「굴레」의 주인공이 입사 시험에 낙방할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사칙에 없는 사항이니 한번 믿어보는 셈 치고 면접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보너스」의 직원들도 크리스마스 즈음에 나오는 보너스를 의례적인 명분으로 기다리고 있다. 권력이 던져놓은 미끼인 기대감에 사회적인 약자는 의례적인 믿음으로 따라 가고 있다. 하지만 신뢰관계는 깨어지고 결국 불신관계에 이르게 된다.

「굴레」의 주인공은 입사시험에서 상하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짓누르고 있던 관계를 벗고 자신의 목소리로 부당함을 신고 하지만 「보너스」의 주인공은 다르다. 보너스를 받지 못한 크리스마스 전날이 지나고 크리스마스 뒷날 출근한 직원들은 사장의 요청으로 사장과 면담 시간을 가지게 된다. (보너스를 기대하던 주인공과 직원들은 보너스 지급을 위한 면담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약속한 시간인 오후 세시가 되자, 직원 한 사람씩 사장실로 불러 개인 면담을 시작한다. 처음 면담을 마치고 나온 직원을 통해 보너스를 위한 면담이 아님을 알게 되고 주인공은 면담을 통해서 실상을 알게 된다. 여기에서도 사장의 통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면담의 실상이 보너스가 아님을 미리 알지 못하게 해서 직원들의 반발 기회를 제거하고 손쉽게 통제해 나가고 있다.

사장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내 말이 끝나자 사장은 입에서 담배를 뱉으며 이제 비로소 진짜 용건을 말하려는 듯 상체를 굽혔다.

“그렇게 회사 사정을 다 이해해 줘서 나는 솔직히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도 실은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일이 천 원이라도 꼭 나눠드려서 내 뜻을 포할 작정이예요. 일이 그렇게 될지 어떨지 아직 확실한 자신은 없지만.”

“아닙니다. 뭐 그렇게 무리를 하실 필요가……”

나는 진심으로 그 사장의 뜻을 사양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장은 내 말을 못 들은 체 자기 말만 계속했다. 이번엔야말로 진짜 용건을 꺼내려는 듯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그렇고, 그보다도 오늘 내가 이렇게 따로 사람을 만나는 건 다른 한 가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섭니다. 회사 사정도 그렇고 해서 아무래도 이해 안으로 편집실 직원을 좀 정리해야 겠어서 말이에요.”

예감대로였다. 나는 불시에 예리한 칼날이 가슴을 스쳐가는 듯한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갑자기 등골에 식은 땀이 흘렀다. 보너스를 사양하기가 천만다행이라고 금세 아슬아슬한 기분까지 들었다.

“딱한 일이지만, 파선 직전에 당면한 배가 굳이 사람을 다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겠소? 그건 외려 위험한 일이지요. 몇 사람이라도 우선 하선을 시키면 그 사람 쪽에서 보면 적어도 배에 남아 있는 것보다는 안전한 대피가 되겠고, 배 자체로서도 위험이 떨어져서 희망을 가지고 앞일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게 아니겠소?”

사장이 경위를 다져 말했으나, 나는 아직 기운을 차릴 수가 없어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조차 않는 것 같았다.

(같은 책, pp.71~72.)

사장은 주인공을 불러 보너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주인공은 보너스가 50% 아래로 내려가면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사표를 쓰겠다고 다짐했었지만 주인공은 사장이 보너스에 대한 변명을 하기도 전에 도리어 보너스를 사양하고 있다. 주인공은 실상 스스로 자신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 줄 믿고 있지만 이는 사장의 의도에 이끌려 간 것이다. 사장은 침묵으로

통제해온 질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 온 것이다. 그리고 사장은 원하는 대로 한결 말하기 편하게 보너스를 줄 수 없는 마음을 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회사 사정을 이야기하며 직원 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주인공은 회사의 부당한 대우나 회사에서의 갈등, 억압감이 생길 때마다 사표를 쓰겠다고 다짐했었다. 언제나 회사로부터 가혹 받아오는 입장인 직원으로서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표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주인공에게 유일했던 억압에 대한 출구가 사라지고 있다. 자발적 사표가 아니라 정리 해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의 고민이 아니라 회사에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보너스를 주지 않는, 혹은 주지 못하는 회사에서 직원 감축이라는 회사 사정 때문에 직원들은 보너스에 대한 원망이나 아쉬움은 표할 수가 없다. 보너스는 못 받아도 좋으니 해고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갈 것이기 때문이다. 희망과 좌절의 반복을 통하여 기대감을 가지기 이전 상태가 더욱 좋았다고 체념하게 만드는 권력의 통제 수단인 것이다. 자신의 기대감이 사치가 되게 만들어 과거에 가진 것들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심리로 변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함께 남아야지요. 이해가 되는 사람끼리 남아 뭉쳐서 해보는 겁니다. 사람이 줄고 나면 그만큼 일이 힘들어질 테지만. 그래서 오늘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배전의 이해와 노력을 당부하려는 뜻에서 자리를 같이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서의 이야기는 나와 둘이서만 알기로 하고. 자, 그럼…….”

말을 다 마치지도 않은 채 사장은 출근부를 한 장 넘기더니 내게 다음 사람을 들여보내라 이르고는 새 담배를 꺼내 물었다. (같은 책, pp.72~73.)

사장은 주인공에게 함께 남을 것이라는 희망과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끼

리 뭉쳐서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을 동시에 당부한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사장은 「굴레」의 입사전형과 동일한 순종의 미덕이라는 이해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주인공은 사표를 쓰지 않는 한 줄지에 사장에게 사로잡힌 포로처럼 꿈쩍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보너스를 기다리던 입장에서 보너스는 고사하고 월급을 받기 위해 회사의 부당함 속에서도 노력해야 하는 피학자가 된 것이다.

사장은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까지 보인 행동이 단지 침묵과 주시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가 통제되어 유지된다는 아담스미스의 이론처럼 사장은 보이지 않는 수단을 통해 지식인을 통제해 나갔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순종의 미덕을 강요하고 사장은 원하는 바를 얻음으로써 조직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가학은 오늘날 심화되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계속되는 침묵의 가학에 침묵으로 참을 수밖에 없는 피학자들이 오늘날 소진 증후군<sup>21)</sup>과 같은 여러 정신적인 징후를 보임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사장의 침묵과 주시의 행위는 직원끼리도 침묵하고 주시하게 만들고, 구성원이 서로의 감시자 역할을 함으로 조직을 통제해 나가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 3. 직접적인 가학자

「가학성 훈련」의 주인공 현수는 셋방살이를 하는 고용 운전사다. 셋방살이 하고 있는 주인집은 결혼한 지 3년 되고 세 살 난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다. 이 세 살 난 아이가 울 때 현수의 네 살 된 딸 선희를 데려다가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게 한다. 그러면 울음을 멈추는 것이다. 선희는

---

21) 소진 증후군 (Burn-out) 정신적 신체적 피로로 인해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소진 증후군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과자를 얻어먹고 집 주인의 안방으로 건너가 머리끄덩이를 내어준다.

### 1) 대물림된 가학

주인 집 내외는 부모 잘 만나서 결혼한 지 3년도 채 안되었지만 집을 가지고 있고, 현수는 그 집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주인 집 내외의 행세는 그들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것이고, 이어 그들의 세 살 된 딸로 이어진다. 현수의 셋방살이는 딸 선희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인 집 내외는 셋방살이 하는 현수 내외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남의 가족에게 머리끄덩이를 내어줘야 하는 것에 어느 부모도 쉽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인 집 내외는 현수 내외의 마음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네 살 난 딸 선희를 데려가고 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관계가 가학과 피학의 관계에 놓이게 됨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철없는 젊은 것들이라고 남 싫어하는 눈치도 모르나.”

저녁이면 자주 현수에게 푸념을 늘어놓았다.

“제 새끼 귀한 줄은 알면서 남의 자식은 뭐 머리끄덩이나 끄들리러 난 아인 줄 아나.”

이젠 아이가 올라치면 안방 여자가 제법 선희년을 빌리러 오기까지 한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그러는 주인댁이 더 알밋다고 했다. (같은 책, p.76.)

“누군 뭐 보내고 싶어서 보내나요? 아이가 울면 아예 달랠 생각도 않고 제 에미란 여자가 양금양금 건너와서는 선희를 살살 꼬여가니깐 그렇죠.”

(같은 책, p.77.)

“이러이러……오웁지! 그래 거길 잡고 요렇게 잡아당기면서…… 이러이러…… 그래그래 오웁지…… 이러…….” (같은 책, p.78.)

안방 여자는 아이를 달랠 생각보다는 현수네 딸을 데려다가 머리끄덩이

를 내어주고 울음을 그치게 하는 쪽을 택한다. 현수 아내는 딸 선희를 내어주기 싫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다. 셋방살이 하는 처지 때문이다.

「굴레」나 「보너스」에서는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 아니라 사회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굴레」에서는 사회로 나가는 초년생이 느끼는 부당한 권력이 가학으로 나타난다. 「보너스」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고용관계에서 오는 가학과 직장동료들과 불신 관계에서 오는 가학이 나타나고 있다. 「가학성 훈련」에서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가학과 사회에서의 가학의 형태뿐만 아니라 가학의 대물림까지 확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권력의 주체는 배려가 없다. 눈치 보는 일도 없다. 이 법칙을 「가학성 훈련」에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안방 내외는 남의 집 아이를 학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함을 보여주는 가학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선희의 부모는 선희가 가학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묵인함으로써 가학은 반복된다. 선희를 데려가는 안방 내외와 선희를 내어주는 현수의 아내는 선희가 받을 가학 앞에 묵인하는 동일한 태도를 보이지만 입장 차이는 확실히 다르다. 안방 내외의 묵인은 가학의 침묵이요, 선희네의 묵인은 피학의 침묵이다. 안방 내외가 주인 집 행세를 돈독히 하는 것이다.

주인 집 내외의 가학은 암묵적인 행위의 가학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위에 의한 가학이다. 「굴레」에서처럼 면접 보는 도중 ‘아버지가 무엇 하시느냐?’라는 의도된 말에 내포된 가학이 행해진다면, 「가학성 훈련」의 주인 집 내외는 행위로 나타나는 직접적인 가학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아이들의 놀이처럼 보이는 어른의 가학과 셋방살이라는 사회적 지위로 인해 항의 할 수도 없다. 이는 「굴레」, 「보너스」에 나타나는 침묵의 가학과 동일하다.

현수의 딸은 주인 집으로부터 가학을 경험하기에 어린 나이부터 이미 가학을 경험한다. 결국, 현수도 주인 집 내외의 눈치를 살피므로 가학을 받고, 현수의 딸은 주인 집 딸에게 머리끄덩이를 잡히므로 가학을 받고 있다. 피학자도 세대를 넘어 유전처럼 대물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방 내외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가학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대물림 받아 습득된 가학은 보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피학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도 상실하고 있다.

## 2) 폭력적인 가학

가학과 피학의 관계가 대물림되고 있음은 현수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더욱 잘 드러난다. 현수에게는 운전사라는 직업 때문에 사회생활에서의 가학도 가중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자.

“차를 돌려!”

숨을 쉴새없으며 그가 다시 명령을 해왔다. 놀란 현수는 즉시 차를 급정거시켰다. 그러곤 계속 창문 앞을 향한 채 의아해서 물었다.

“어디로 가시려구요?”

“다시…… 거꾸로 달리는 거야. 스카이 웨일 왔다갔다…… 알겠나?”

사장의 대답은 기상천외였다.

“그건 무엇 하시려구요?”

“무얼 하건 참견 말구 시키는 대로 차나 돌려!” (같은 책, p.90.)

“흠……너무 오래 되었어 너무……사람이란 오래 두면 으레 못된 요령이 늘게 마련이지…….” (같은 책, p.98.)

사장의 말투는 명령적이어서 현수에 대한 배려가 없다. 「굴레」와 동일하게 순종의 미덕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만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중요시 된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도 신분사회의 연속으로 자본을 가진 자가 못가진 자에게 상위 존재가 되어 가학하고 있다.

고용인의 피고용인에 대한 입장이 정 사장의 독백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밤중에 이유 없이 북악 스카이 웨이를 왕복할 것을 명령하는 사장의 지시는 일방적이다. 가학은 또한 「굴레」와 「보너스」에 비해 직접적이다. 정 사장은 들으라는 듯이 혼잣말로 현수를 비난하고 있

다. 겉으로는 질서를 유지하듯이 행동하는 「굴레」와 「보너스」의 권력자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가학성 훈련」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접 항변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화 요청은 없다. 하지만 「굴레」와 「보너스」에서의 침묵보다 열려있는 형태의 침묵으로 혼잣말로 표현하여 현수를 비난한다. 가학하는 행위는 혼잣말로 표현했지만 폭력성을 가진다. 침묵의 형태의 가학이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장과 현수 사이의 대화는 없다. 결국 권력자는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가학성 훈련」이 「굴레」와 「보너스」의 침묵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굴레」와 「보너스」에서의 가학은 지식인으로 무언의 압박을 인지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대상이라면 「가학성 훈련」에서 현수는 지식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침묵에서 오는 가학이나 무언의 압박이 정신적인 통제의 수단으로 더욱 강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굴레」, 「보너스」, 「가학성 훈련」은 이청준의 많은 작품 중에서도 일상적인 인물들이 가학과 피학의 사회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그 중 가학하는 자를 중심으로 인물 분석을 해보았다. 「굴레」는 개인과 집단의 갈등을 「보너스」는 개인과 집단,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가학성 훈련」은 가정 내에까지 갈등이 들어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분포가 좁아진 갈등 양상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 침묵의 가학에서 언어로 표현되는 가학을 보여줌으로 지식인과 그렇지 못한 대상자에 따른 가학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현수라는 대상자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굴레」, 「보너스」, 「가학성 훈련」의 권력자는 보이지 않는 가학 방법을 선택한다. 이는 바로 침묵이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공손하지만 보이지 않는 폭력인 침묵이 약자에게 가학되어지고 있음을 인식시킴으로 권력 안에 들어온 자를 통제하고 억압한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비지식인에게는 언어적인 폭력을 가해서라도 일깨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침묵은 숨김이 되고 숨김은 속임이 되어 권력자와 약자간의 불신관계를 만든다. 하지만 침묵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사회적 약자의

대항을 무력하게 한다. 즉, 권력자의 횡포를 표면적으로 정당화시켜 준다. 권력자가 보여주는 침묵의 가학이 제도적인 폭력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사람을 저해하는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이청준은 이 모습이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넘어 개인과 개인 관계로 이어지면서 불신으로 인한 소외감이 인간관계 단절로 이어지고 있으며 권력자의 가학이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저해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IV.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

다양한 위치에 놓인 사회적인 약자들은 각자 권력의 가학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위치에 따라 권력의 가학에 반응하는 방법과 대항하는 정도의 차이가 보인다.

부당한 관계에서 오는 사건을 통해 사회적인 약자 인물들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고 있는지 유형에 따라 살펴보았다.

### 1. 금기를 깬 대항자

「쿨레」의 주인공은 M신문사에 입사시험을 보러 왔다. 주인공 화자와 함께 시험을 보러온 친구는 이니셜 S라 불리고 있지만 작중 화자는 무엇으로도 불리지 않는다. 다만 수험번호가 467번이라는 것만 알 수 있다. 소설의 형식적인 특징으로 주인공 나의 진술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인공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자본주의의 현대문명 속에서 ‘나’라는 주체를 잃고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줄어가는 현상은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수험번호 467로만 불리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간 소외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S와 나는 천천히 사람들의 사이를 뚫고 교정 안으로 들어섰다. 어디에도 조용한 곳은 없었다. 시험을 치른다는 기색이 전혀 없었던 학교 친구들과도 여러 번 맞부딪쳤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식’ 아니면 ‘뭘 하러왔어, 이런 델?’ 식으로 한마디씩 건네거나 그냥 쑥스럽게 웃고 지나쳐버렸다. 긴 이야기는 하기가 싫었다. 까닭 없이 쑥스럽고, 싱겁고, 그리고 후회스러웠다.

운동장 쪽에는 사람이 더 많았다. 엑스트라가 많은 사극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굉장하군.”

“1천 명이 넘는다니까.”

S와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같은 책, p.12.)

주인공은 입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운동장에 모인 수험생들을 마치 엑스트라 같다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엑스트라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설 후반부에서 주인공은 신문사 거대한 빌딩을 괴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수험생들은 이 괴물을 존재하게 하기 위한 엑스트라로 볼 수 있다.

세계(사회)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 세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건 수동적으로 따르건 혹은 저항하건, 세계는 그 모든 움직임의 총체적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레」의 주인공은 그 세계에 동참하지 못하고 세계에 의해 학대를 받는 입장에 서 있다. 결국 세계에 의한 학대는 인간에 의한 학대임을 생각할 때 박탈감과 소외감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S는 여전히 비실비실 웃는 표정이었다. 나는 지금이라도 시험장을 나가버릴까 생각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때 벨이 길게 한 번 울리고 시험지를 돌돌 말아든 시험감독이 문을 들어섰다. 그 순간 나는 눈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시험감독은 뜻밖에 내가 군대엘 갔다 오는 동안 졸업을 해 나간 내 입학 동기 H였다. 왜 나는 여태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생각했다고 해도 설마 그가 내 시험 감독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S가 나를 돌아보고 웃었다. 그도 조금은 H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때는 으레 누구나 그럴 수 있듯이 나도 처음에는 금방 자리를 일어서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막상 몸이 일어서려고 하질 않았다. H는 아직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다. 조그만 몸짓만 해도 H는 단박 나를 알아보고 성큼성큼 내게로 다가와 자리를 일어서려는 내 등을 두들겨 주저앉혀버릴 것 같았다. 일어서려지 않는 것은 실상 육신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다. (같은 책, p.15.)

시험 감독관은 입학 동기 H이고 시험장을 나가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

어나지만 막상 몸이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다. 생각을 따라 움직여주지 않는 몸이 일어서지 않은 줄 알았지만, 일어서려고 하지 않은 것은 육신이 아니라 생각이었다고 고백한다. 주인공은 취업 경쟁 속에서 극심한 가학을 느끼고 있지만, 그 상황을 이기어 취업 해 보겠다는 마음이 더 크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 희망적이다.

시험관인 입학 동기 H에게 시험 보러 온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가슴을 조려하지만 들키고 나서는 오히려 속이 시원해한다. 이 모습은 이 시대 청년으로서 취업의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함이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강한 욕구라는 것을 비추어줌으로 주인공의 처지와 입장을 드러낸다. 심리적으로도 감추고 싶은 것을 숨길 때에 나타나는 긴장감이 드러나게 될 때 오히려 시원한 안정감을 받기도 한다.

이 현상은 또 반복되는데, 주인공이 M일보 인사과에 근무하는 선배를 찾아가서 X지방 출신과 편모자녀는 뽑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이다.

“경우는 다르지만, 가령 합격을 한다 해도 보직도 좋지 않구…… 정 서운하거든 면접을 가서 괜히 굶실거리지 말고 시원한 소리나 뱉어주는 게 차라리 뒷말이 나올 거야.”

행여나 하고 끌려 다닌 일이 후회스러울 뿐이었다. 선배와 헤어지고 나오면서 나는 차라리 속이 편하게 되었다 싶었다. (같은 책, p.23.)

혹시나 붙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불안해할 바에 인사과 선배의 말에 체념하게 될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 진다. 하지만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을 통해 취업하고자 하는 희망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이 희망고문 현상은 나중에 면접 시험장에서 오줌 마려움 증세로 심화되어 나타난다.

타인보다 자신의 위치가 빈약할 때 상대적 빈곤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초라해지면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 불안 증세를 뛰어 넘을 것인지가 소설의 관건이 될 것이다. 권력의 억압 속에서

권력에 편승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과, 정의의 목소리를 내고 원하는 바를 포기하는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높은 벽을 뛰어 넘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벽이 자꾸 자라나 자신이 뛰어넘지 못하도록 막는 불공평함은 주인공에게 침묵의 가학이 되어 오줌 마려움 증세를 드러낸다. 권력의 억압은 피학자의 사회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주인공은 쉽게 희망을 버리지 못해 자신의 운명을 신에게 내어 맞기고 면접 당일 M일보사로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인공이 선택하기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소시민의 처지를 그리고 있다. 또한 주인공이 애초에 권력에 대한 저항감을 가진 청년이 아니라 모범적인 청년임을 드러냄으로써 주인공의 내면 갈등과 증세에 사회적인 책임을 묻게 한다.

그러나 면접 당일 나는 기어이 M일보사 쪽으로 가는 버스를 찾아 탔다. 선배를 만나고 나서 처음 나는 완전히 단념을 하고 말았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나니 차츰 분한 생각이 들었다. 선배의 충고를 사서 면접 때 욕설이라도 한바탕 내뱉어주어야 속이 풀릴 것 같았다. 그러나 막상 면접을 가겠다고 정하고 나니 그것도 생각처럼 간단치가 않았다. 기왕 면접장까지 갈 바엔 일이 되도록 힘을 쓰는 편이 좋으리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하고 나서 일이 되지 않으면 다시 미련은 없으리라는 심사가 앞을 섰다. 그러자면 우선 외양부터 께죄죄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 이날 아침엔 모처럼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 이발소엘 다녀왔다. 하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왔다. 아침을 먹는 등 마는 등 서둘러 넥타이를 챙겨 매고 나선 혼자 은근히 들뜬 기분에 어머니에게까지 사실을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 그나마 간신히 말을 참고 대문을 나서 온 것이었다. (같은 책, pp.23~24.)

입사 기준의 부당성을 들었을 때 분한 생각에 욕설로 되갚을 생각을 하지만 권력 앞에서 주인공은 또 다시 억압당한다.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권력의 부조리 속에 편입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구조가 권력 부조리 현상 속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권력 부조리는 곧 사회의 부조리 현상이다. 부당한 입사기준 때문에 면접을 포기할

생각도 해보지만 결국 끝까지 힘써 보자는 기대감으로 기준에 부합되기 위하여 이발소에도 다녀오고 걸모습을 치장하는 노력도 한다. 1차적으로 면접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치장을 하지만 권력 앞에 초라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정돈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노력한다. 포식자에게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고 하는 약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를 통해 주인공이 사회 저항적인 인물이 아니라 사회와 융합되어 살려고 노력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주인공은 사회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기대감은 좌절되고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주인공은 오줌이 마려운 생리현상까지도 억압당하고 면접 대기 중에도 끝없이 권력과 자아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된다. 면접을 기다리는 사이 자꾸만 마려워 오는 오줌과 아무렇지 않아 보이려고 하는 걸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부조리한 상황을 더욱 부각시켜 준다.

사내의 주의가 끝나고 나서는 가끔 조심스런 잔기침 소리가 들릴 뿐, 대기실 안은 귓속말을 주고받는 소리조차 없었다. 그 기침 소리조차도 학교에서 애국가 봉창이 있기 전에 늘상 들을 수 있는 그런 헛기침 소리여서, 긴장한 대기실 안을 더욱 긴장시켰다. (중략) 나는 오줌이 마려웠지만 그냥 견디기로 하고 역시 숙연한 태도로 내 차례를 기다렸다. 벨 소리가 울려나올 때마다 까닭 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오줌이 조금씩 더 마려웠다. 한 사람 건너 앞에 서 있던 선배가 기다리기가 힘들었던지 슬그머니 내게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시험관 앞에 가 선 것처럼 조심스럽게 소리를 죽여 속삭였다.

“이상한데……. 우리 X지방패들은 뽑지 않는다는 소문이던데 1차에 붙여준 게?”

불안한 얼굴이었다. 아니, 이미 들어앉아 있는 불안을 쫓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얼굴이었다.

“뭐 그냥 연습으로 생각해야지요. 들어갈 놈은 벌써 다 정해져 있다는데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잘라 말했다.

“이 사람…….”

내 목소리가 조금 컸던지 선배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다. 나는 새삼 다시 이곳까지 와 있는 자신을 후회했다. M일보사의 거대한 빌딩이 갑자기 큰 괴물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앞에 너무나 작았다. 욕설을 퍼부어도 그 괴물의 귀에는 도무지 들리질 않고, 더구나 성깔 따위를 드러낼 것 같지는 않았다. 욕설을 쏟을수록 자신만 더 화가 날 게 뻔했다.

줄이 차츰차츰 줄어갔다. 드디어 두 사람의 선배가 사라지고 미구엔 나의 옛 녀석도 사라졌다. 거기서부터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이제 오줌을 누려 갈 수는 아주 없게 되었다. 한 번 더 벨이 울리자 나는 빨리 들어가듯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제1면접 시험장은 엄청나게 넓었다. 몇이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일제히 내게다 시선을 부여왔다. 나는 문 앞에서부터 바닥 위에 그려놓은 백묵 화살표를 따라 신부처럼 조용조용 지정된 걸상으로 걸어갔다. 거기서 나는 내 수험 번호와 이름을 뱉었다.

“앉으시오.” (같은 책, pp.24~25.)

면접 대기실에서 침묵의 불편함과 긴장감 속의 기침은 마치 애국가를 봉창하기 직전의 기침소리와 같다는 표현을 한다. 애국가가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인 것처럼 지금 면접 대기실의 분위기는 마치 회사에 취업된다면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수험생들의 내면과 긴장감을 아이러니컬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주인공이 괴물같이 거대해 보이는 신문사를 통해서만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면접을 치르기 위해 선발되어 온 수험생들을 향해서도 움츠러들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주인공은 거대한 조직체에서 뿐만 아니라 입사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 과도 경쟁관계에 놓여 가학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대기실 분위기에 더욱 긴장하는 주인공은 같은 X지방 출신 선배의 불안한 말 한 마디에 자신은 불안하지 않은 체하며 진실을 감추고자 한다. 여기서 주인공의 내면 심리와 보여주는 심리가 분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인공의 불안한 심리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불안한 심리의 근원이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너스」에서도 이런 심리가 보이는데 주인공이 잡지사 사장에게서 느끼는 가학과, 같은 처지임에도 직장 동료들에게 느끼는 가학으로 인해서 자신의 속내를 숨기는 것이다.

주인공은 같은 X지방 출신 선배와의 대화 후 면접시험 보러 온 자신을 후회한다. 후회 심리는 곧 M일보사로부터 느끼는 가학의 정도를 가중시키고 M일보사 거대한 빌딩을 갑자기 큰 괴물로 느끼게 한다. 가학과 피학의 관계는 상·하 권력관계나 주종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물론 「굴레」에서 가학을 제공하는 궁극적인 존재는 괴물로 표현된 M일보사이다. 주인공은 가학을 느낄 때마다 트라우마처럼 오줌 마려움을 겪는다. 같은 X지방 출신 선배가 말을 걸어왔을 때와는 다르게 M일보사 면접실로 갈 때 주인공의 발걸음은 신부처럼 조용조용하고 수동적으로 되어갔다. 권력의 억압이 질서를 통제하고 유지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속마음을 숨기려고 하는 주인공의 긴장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진실하지 못한 관계로 상처받고 움츠러든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오줌이 조금 마려웠지만 그냥 견디기로 하고 역시 숙연한 태도로 내 차례를 기다렸다. 벨 소리가 울려 나올 때마다 까닭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오줌이 조금씩 더 마려웠다. (중략)

줄이 차츰차츰 줄어갔다. 드디어 두 사람의 선배가 사라지고 미구엔 나의 앞 옛녀석도 사라졌다. 거기서부터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이제 오줌을 누려 갈 수는 아주 없게 되었다. 한번 더 벨이 울리자 나는 빨리 들어가듯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같은 책, pp.24~25.)

나는 또 조금씩 오줌이 마렵기 시작했다. 화장실은 물어봐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테이블의 사내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오줌이 마려운 것은 아마 나뿐이 아닐 텐데, 아무도 화장실을 묻는 자가 없었다. 어찌면 이 친구들은 그 요의를 참느라 그렇듯 긴장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같은 책, p.29.)

주인공은 억압된 환경이 더욱 조여올 때 오줌이 마렵다. M일보사 빌딩이 큰 괴물처럼 느껴질 만큼, 욕설을 퍼부어도 괴물의 귀에는 도무지 들리지 않을 만큼 M일보 권력의 억압은 거대해지고 나는 작고 초라해진다.

보이지 않는 억압으로 초라해지는 주인공은 억압의 극한 상황에서 오줌 마려움을 겪는다.

권력의 억압은 부당함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무력한 소시민의 모습뿐만 아니라 생리현상까지 잠재적으로 억압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인공은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을 보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합리한 존재라고 느낀다.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소외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면접에 자신의 순서가 되었을 때 빨려들어갓 들어간다는 표현에서 자신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회사의 흡입력만이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표현은 「보너스」에서도 볼 수 있다. 「보너스」의 주인공은 회사의 가학에 대항하지 못하는 직장 동료들을 중력 없는 바윗돌로 표현한다. 가학에 대항하지 못하고 휘둘리는 모습을 무게감 없는 혹은 중력 없는 상태로 표현한 것이다. 자기 면접 순서가 되자 무게감을 잃고 빨려들어갓 면접실로 들어가는 「굴레」의 주인공과 동일하다.

왼쪽 가까이에 앉아 있던 사내가 말하고는 내 왼손에서 신상 카드를 받아 갔다. 공손한 말씨였으나 나는 그 말씨가 되레 불안했다. 나는 걸상 끝에 엉덩이를 조금만 대고 앉았다. 그러곤 힘을 모아 머리를 들고 나의 시험관들을 쳐다보았다. 나는 또 후회했다. 나는 피고석에 앉아있는 죄인 꼴이었다. 내 들레에 안경을 번쩍이며 나를 살피고 있는 사람들은 범정의 그 사람들보다 더 위엄이 흘렀다. 영락없이 나는 피고가 되어 있었다. 머릿속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앉아 있는가? (같은 책, p.26.)

빨간 넥타이 사내의 빈틈없는 공손함처럼 신상 카드를 받은 면접관의 공손한 말씨는 주인공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X지방 출신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기록이 담긴 카드를 받아 간 그 순간 발가벗겨진 듯한 기분을 맛보았을 주인공은 엉덩이를 조금만 대고 불편하게 앉는다. 이 불편함은 곧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다. 소속감 없는 주인공의 심리가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얽치 불구하고 앉은 듯이 불안한 심리를 엉덩이를 걸치고 앉은 주인공의 모습으로 보여준다. M일보사 입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면접을 보러 온 사람 마냥 면접관들의 억압된 분위기에 눌려 자신의 초라함을 느낀다. 발가벗은 듯이 심판대에 오른 주인공의 심리가 진실을 숨겨야 승리하는 게임에서 진실을 들킨 패배감으로 표현된다. 필기시험에 정정당당하게 합격하고 면접시험을 치르러 왔음에도 부당한 사람처럼 죄인이 되어 있다. 이런 모습은 주인공의 불안 증세를 심화시켜 보여준다. 무엇이 주인공을 죄인이 되게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주인공이 하고 있다.

“대학을 갓 나와 철없이 패기에 차서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 녀석들을 무더기로 끌어다가 콧대를 실컷 꺾어놓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령 면접시험관 같은 것 말입니다. 이놈들에겐 우선 합격이 될지도 모른다는 착각이 들게 한 다음 풀이 죽어 애원하는 눈초리를 하고 제 앞에서 있게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여 세상 맛을 보여주면 젊은 녀석들 거리에서 철없이 굴지도 않고 세상은 훨씬 더 주무르기가 편하게 될 테지요—”  
(같은 책, p.33.)

면접관의 ‘우리 사로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스스로 ‘낙방을 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로 거꾸로 질문을 청하여 대답한 내용이다. 면접에서 질문을 역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드디어 반격을 가한다. 주인공은 참을 수 없는 오줌 마려움 증세로 항변을 시작한 것이다. 주인공의 항변은 면접관들의 친절함은 합격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줌으로 희망고문 한다는 것이다. 이는 회사가 가하는 가학에 대한 수험생들의 저항을 통제해 나가는 방편이 된다. 좌절감은 부당함에 대한 저항에 약자가 되게 할 뿐이다. 권력의 권리만 존재하고 사회적인 약자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사회적인 쟁점으로까지 나아가 항변하고 있다.

이러한 주인공이 처음부터 면접에 대항하지는 않았다. X지역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왔고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용모도 단정히 하고 왔다. 하지만 면접 분위기에 마치 죄인이 되어 법관 앞에 선 피고인처럼 압박받고 있다. 주인공은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 형을 받는 피고인의 심정

이 되었고 면접은 재판의 시간으로 그 판결에 자신의 앞날을 내맡기고 있다.

주인공의 죄명은 무엇이란 말인가? 스스로 되물어도 죄명이 없다. 죄명도 없이 자신의 작고 초라함은 M일보사의 거대함 때문에 오는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이다. 이 소설은 애초에 공평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청준의 고발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인공의 불신은 면접을 보는 내내 면접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솔직하게 대답하는 자신을 후회할 만큼 수직 관계의 부조리와 불신 관계를 통해 작가는 고발하고 있다.

젊은 친구가 뭐라고 하려는 눈치였으나, 가운데의 사내가 눈짓으로 그를 막았다.

“이것은 아마 생각하고 계신 점과 부합하리라 믿어져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말하자면 사회 정의를 실현해 가는 한 방안이지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물론 먼저 커다란 황금의 궁성을 지어세울 필요가 있겠는데, 그것이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같은 책, p.33.)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수직적 권력 관계로부터 오는 부정적 인간관계가 나아가서 사회적인 관계로 확산된다. 주인공은 자신이 받고 있는 이 재판의 부당함을 벗고자 선택한다. 그것이 바로 되묻기이다.

주인공의 되묻기를 허락한 면접관은, 주인공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다. 애초에 들을 마음이 없으면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시간을 부여했을 뿐이다. 주인공이 M일보사를 거대한 괴물처럼 느끼며 그 앞에서 아무리 욕설을 퍼부어도 괴물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거라는 말의 뜻이 여기에 있다. 면접관은 주인공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직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이 침묵은 또 다른 가학이 되어 주인공을 공격한다. 또한 권력자의 책임회피의 수단이 된다.

모든 관계는 쌍방향에서 이루어져야 소통하게 된다. 하지만 M일보는 수용단계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관계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다. 수용은 없고 제기만 있는 일방적인 관계는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가학자, 수용하는 쪽은 피학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가학의 입장에 서는 쪽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도권을 쥐는 쪽이다. 즉 자본이다. 주인공이 느끼는 가학은 공평하지 못한 관계로부터 온다. 공평하지 못한 관계에서 부조리함을 극심하게 느낄 때 오줌 마려움 증세를 겪는 주인공이 선택한 방법은 되묻기의 문제제기이다. 침묵이라는 금기사항을 깬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금기를 깬 주인공의 되묻기는 면접에서 탈락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도약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작가는 알을 깨고 진정한 사회인으로 발을 내딛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황금의 궁성은 자본주 권력을 상징하고 있다. 주인공은 M일보사 빌딩을 괴물의 주체로 보고 사람이 아니라 자본 곧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사회의 모습으로 대치시키는 것이다. 인간이 아니라 무생물이 권력 주체가 되어 거대한 자본 체제 앞에서 객체화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주인공이 M일보사 시험장에서 가림주구의 한자가 생각나지 않아 많은 시간을 보낸다. 왜 하필이면 가림주구 한자가 생각나지 않아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하필이면 왜 가림주구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만하다.

## 2. 소외되는 안주자

「보너스」의 서술자는 잡지사 직원이다. 반면 「굴레」의 서술자는 M일보사 취업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다. 두 인물 모두 권력의 억압 아래에 놓이게 되는 공통점을 가진다. 다만 「보너스」 주인공은 잡지사 직원으로 권력에 소속되어 가해지는 억압을 피할 수가 없다. 「굴레」의 주인공은 시험을 치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완전한 억압에 놓여있지 않다.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고 억압 아래에 놓인 두 주인공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보너스」의 직원들과 주인공은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기다리고 있다.

보너스는 퇴근시간이 가까워도 소식이 없다. ‘그런데 웬일인지 정작 그 6시에 해답을 줘야 할 당사자인 사장은 코끝조차 내밀지 않고 있었다. 시간은 그 어두컴컴한 사무실에 깊은 초조와 불안기를 뿌리면서 그 6시를 향해 바작바작 다가들어 가고 있었다.’<sup>22)</sup>는 표현을 통해서 보너스를 기다리는 직원들과 주인공의 심리를 알 수 있다. 보너스를 들고 나타나야 하는 사장의 코끝도 보이지 않고 퇴근시간이 가까워 날은 어두워지고 있다. 어두움 속에서 타들어가는 건 보너스를 향한 직원들의 기다림이다. 「굴레」에서도 주인공은 M일보사 취업 시험을 치르면서 합격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사건은 시작하고, 「보너스」도 보너스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

“벌어먹을…… 이런 날은 좀 일찍 일을 서둘러 주지 않구…….”

어느 구석에선가 불쑥 그런 불평이 한 마디 터져 나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뿐 다시는 아무도 말이 없었다. 유리창가의 D군도, 방금 불평을 내뱉던 친구도 하나같이 자신의 여유를 회복하려 애쓰는지 다시 잠잠해져 버렸다. 하지만 6시에 나올 해답이 기대와 다른 것이라면. 그리고 사장은 지금 사원들이 이미 모든 것을 단념하고 깨끗이 퇴근을 해버렸으리라, 또는 그랬기를 바라고 있다면, 이 여유 있는 표정들이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고 말 것인가. 나는 목구멍에서 자꾸만 웃음이 기어 올라오는 것을 참고 있었다. 그러나 또는 그런 것을 예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시치미를 떼며 여유 있는 표정들을 짓고 있었다. 뻥한 속들이었다. (같은 책, pp.37~38.)

주인공은 사장만 불신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불신한다. 주인공이 보너스를 기다리는 회사동료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부정적이다. 보너스를 기다리는 마음이 뻥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여유를 부리는 직장동료들을 보며 사장이 보너스를 기다리고 있는 직원들을 발견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한다. 그 모습을 주인공은 우스꽝스럽다고 말하며 목구멍에서 웃음이 기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면서 동료들을 비웃고 있다.

---

22) 이청준, 『이청준 문학전집3』, 열림원, p.37.

「굴레」의 주인공에게서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성을 보았다면, 「보너스」의 주인공은 조금 다르다. 「보너스」의 주인공은 뒤틀린 심사를 보여준다. 보너스를 주지 않는 사장만 서운하고 꽤썸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동료들 때문에 힘들어 하는 모습도 있다. 주인공은 사무실 동료들을 중력이 없는 인간들이라고 표현한다. 보너스 가부에 대해 물어보지도 못하는 배짱 없고 비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나, 처자식은 앞뒤로 주렁주렁 달려있고 사장 눈에 나면 당장 직장을 옮길 능력도 없는 동료들을 보면서 직장을 현재 이 회사로 온 것에 대해 후회를 느낀다. 하지만 주인공도 보너스에 대하여 사장에게 묻지 못하는 것은 직장 동료와 마찬가지로이다. 미스 김에게 직장동료에 대하여 욕하는 모습이나 근무시간에 도박을 하러 나갔다 오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주인공의 뒤틀린 심사에는 이유가 있다.

나를 견딜 수 없게 한 것은 사장이 아니라 사무실 동료들이었다. 전혀 중력이 없는 인간들 같았다. 어떻게 그렇게 배짱들이 없다는 말인가. 도대체 사장 앞에 나서서 보너스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가부를 물어보는 녀석이 한 놈도 없었다. 공연히 눈치들만 보다가 제 폴에들 비굴해져 있었다. 하긴 배짱이 있을 턱이 없었다. 장가들은 일찍 가서 앞뒤로 주렁주렁 처자식들이 딸려 있는데다가, 이곳에서 사장의 눈에 나면 당장 어디 자리를 옮겨 마련할 주변들이 못되었다. 똥배짱을 부렸다가 쫓겨나느니 보너스 그까짓 것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넌지시 기다려보거나 하는 게 낫다는 속셈들인 게 뻔했다. 그게 더 견딜 수가 없었다. 주면 받고 안 주면 그 당장 자리를 옮기기로 작정한 나로서는 이러쿵저러쿵 괜히 나설 계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저 웃음이나 참으며 바라보고 있으려니 그런 내 쪽에서 먼저 울화가 치밀어 올라버리고 만 것이다. 그래 사무실을 나오면서도 나는 이 몇 개월을 그 중력 없는 인간들 사이에서 지내온 것이 다시 한 번 후회가 되고 있었다. (같은 책, pp.40~41.)

주인공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직장 동료들에게서 월급을 제 때 준다거나 보너스를 챙겨주지는 못할망정 일은 꼬박 시켜먹고 조직의 틀에 가둬놓는 사장에게 더욱 답답함을 느낀다. 직장 상사에게 받는 수직 관계

의 억압과 직장 동료들에게 받는 무기력에서 오는 억압으로부터 주인공은 해소가 필요하다.

「굴레」의 주인공이 면접관과 수험생의 불공평한 수직적 관계에서 오는 억압감으로 오줌 마려움을 겪는다면, 「보너스」의 주인공은 회사 조직의 수직적 불공평한 관계의 억압감과 무능력한 동료들에게서 오는 무중력 공간의 답답함을 느낀다.

「굴레」의 주인공이 오줌 마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면접관에게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고 상황을 결말지였다면, 「보너스」의 주인공은 회사에 사표를 쓰기 전에는 무중력 상태의 결말을 지을 수가 없다. 「보너스」의 주인공은 「굴레」의 주인공이 가진 신입사원의 청춘을 잃은 상태이고 이미 회사 조직 안에서 본인도 중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인공이 뒤틀린 심사를 보여주는 표면적인 이유이다. 중력이 없는 것은 중심을 가질 수가 없다. 주인공은 중심도 없고 뿌리도 없이 무게감을 잃고 뒹뒹 떠다니는 무중력 상태의 사물처럼 동료들을 느끼고 있지만 실상 자신도 그러하다.

사무실을 나오자 나는 시원한 바깥 공기에 한두 번 심호흡을 하고 나서 맞은편 S호텔 지하실로 향했다. 진짜 이런 기분으로 빠짱꼬(영어로는 슬롯머신이라 하는 모양인데 우리말엔 부를 만한 명칭이 없고 다들 빠짱꼬라고 했다)를 하러 가보기는 오랜만의 일이었다. 이 회사를 처음와서 얼마 동안 나는 꼭 이런 기분으로 이곳엘 다녔다. 처음부터 이상하게 중력이 느껴지지 않는 동료들 속에서 우물쭈물 시간을 보내다 정머리가 트이지 않을 때 나는 곧장 이 지하실로 건너왔다. (같은 책, p.41.)

중력이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주인공은 숨 쉴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고 사무실을 나와 참아왔던 숨을 내쉬듯이 심호흡을 한다. 무중력 상태의 답답함에서 오는 억압감을 해소하기 위해 빠짱꼬 기계로 도박을 한다. 중력이 없는 사무실에서 나와 도박 기계 앞에 서면 도박에서 오는 긴장감을 통해 주인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도박은 주인공이 주변으로부터

오는 억압을 해소하는 방법인 셈이다.

「굴레」의 주인공이 면접을 기다리는 긴장감 속에 오줌 마려움을 겪고 오줌을 참으며 긴장감을 달래고 있다면, 「보너스」의 주인공은 답답함을 해소하고 긴장감을 느끼기 위해 도박을 하러 가는 것이다. 「굴레」의 주인공은 억압된 상태에서 긴장감을 느끼고 오줌 마려움 증세를 보이지만 「보너스」의 주인공은 긴장감을 느끼기 위해 도박을 하고 있다.

「굴레」의 주인공이 가학을 받을 때 오줌 마려움 증세를 느낀다면 「보너스」의 주인공은 억압을 해소할 때 가학의 탈출구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뭐 굳이 돈을 따겠다는 욕심에서가 아니었다. 내가 이 도박 기계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 데는 다른 조그만 이유가 있었다. 그건 긴장감이었다. 자신에게마저 전혀 중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사무실을 걸어나와 지하실로 내려와 이 기계 앞에 서면, 나는 첫 번 손잡이를 당기는 순간에 벌써 몸이 번쩍 굳어지며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였다. 그 긴장감은 마치 쭈그러진 고무 인형 속에다 바람을 불어넣듯이 한번 손잡이를 당길 때마다 나의 속으로 가득가득 채워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흐물흐물 늘어지고 쭈그러진 내 형체를 금세 다시 되살려 내주는 것 같았다. 코인이 짜르륵 철판 위로 쏟아져 내리는 소리는 뭔지 모르게 흐리터분한 것들을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확 씻어 내주는 것 같았다.

(같은 책, p.41.)

주인공은 직장 동료들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긴장감을 도박기계로부터 느끼고 있다. 직장 동료들에게 중력 없는 상태를 느끼는데 반해 도박기계로부터 흐물흐물 늘어지고 쭈그러진 자신의 형체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낀다. 살아있는 생명체에 무중력을, 생명이 없는 기계에서 생명감을 느끼고 있는 모순은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이 소외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친구들과 화투판을 벌일 때와는 다르게 이곳에선 돈을 잃어 별로 불쾌하지가 않다는 이점도 있었다. 화투놀이 때는 상대가 속이 놀놀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1백 원만 잃어도 여간 화가 나는 게 아니지만, 여기에선 몇 백 원쯤 잃고 나도 결코 그런 식으로 화가 나는 법이 없었다. 혹시 주머니를 털리고 나오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그건 늘 조금이라도 더 그 기계 앞에 서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거나 잭팟의 기회가 아깝게 지나가버린 데 대한 안타까움이거나 하는 것이지, 매정스레 코인을 먹어버린 도박기계에 대한 불쾌감이나 노여움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처음 며칠밖에 이곳엘 다니지 못했다. 처음부터 돈을 따겠다고 한 짓거리가 아니고 또 돈을 잃어도 결코 불쾌해지는 일이 없다면 했지만, 그러나 이 녀석은 너무 자주 그리고 빨리 주머니를 털어갔다. 밑천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사무실 친구들이 어느새 나를 빠징꼬 광으로 치부해버린 때문이었다. (같은 책, pp.41~42.)

주인공은 동료와 화투 도박을 하는 것보다는 기계를 상대로 하는 빠징꼬 도박이 낫다고 말한다. 이유는 사람과의 도박에서는 감정이 상하지만 기계와의 도박에서는 마음 상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동료들과 커피를 마실 돈이 있다면 차라리 도박하는데 돈을 쓴다. 이런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마음은 좋지 않지만 차라리 편하게 생각한다. 1960년대 소설에서 이미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상징인 기계의 보편화가 가져오는 인간관계 단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주인공의 도박 증세는 동료들로부터 빠징꼬 귀신이라 불리는 별종이 되게 하였지만, 오히려 용돈이 없을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편리한 구실도 되어준다. 동료들과 의사소통보다는 도박기계의 코인 소리가 더욱 듣고 싶고 동료들과 대화로 속을 풀기보다는 도박기계의 코인 소리를 통해 속이 시원함을 느낀다. 오히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함을 못 느끼고 중력 없는 상태의 억압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다. 속내를 터놓지 않고 도박 증세를 보이는 주인공에게 동료들은 경쟁 심리나 경계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동정한다. 주인공은 이 관계가 오히려 편하다는 생각으로 역이용하고 있다. 이는 「굴레」의 주인공이 면접관에게 속마음을 말함으로 상처를 받게 될 것을 염려하는 심리와 유사한 심리이다. 결국 물질적 이익을 위해 서로의 마음까지 정보가 되어가는 모습을 통해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가는 모습을 심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런 주인공은 지급이 확실하지 않은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기다리며 퇴근시간을 늦추는 직장 동료들에게서 답답함을 느끼고, 다시 시원함을 느끼기 위하여 지하실 도박기계를 찾아간다. 도박기계의 코인 소리를 통해 긴장감과 뇌수를 씻어내는 기분을 맛보기 위해서이다. 주인공은 사장에게 자신은 보너스를 기다려 퇴근하지 않고 회사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사장과 말 한 마디 나눠보지 못한다. 직장 동료들이 사장에게 시원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속으로 욕해 온 주인공도 막상 사장과 마주앉아서 보너스에 대해 아무 언급도 못하는 직장 동료들과 같은 모습이다. 이를 통해 주인공이 직장 동료들에게 무중력 상태라는 비판은 주인공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주인공을 향한 작가의 목소리일 것이다.

주인공의 이런 심리는 직장 동료 미스 김과의 대화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주인공은 무중력 상태가 되어 이리저리 이끌리는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있다.

이 심리는 「굴레」에서 극심한 오줌 마려움 증세를 겪을 때 금기를 깨고 가학에서 벗어나려는 주인공의 심리와 비슷한 심리이다. 즉 「보너스」의 주인공은 직장 동료들로부터 평가받는 자신의 모습에 부당함을 느끼고 그것은 주인공에게 가학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반면 처자식이 딸린 직장 동료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는 사장을 나무라기도 한다. 이 모습을 통해서 주인공은 직장 동료들의 처지를 안쓰럽게 보기도 한다. 권력자의 가학으로부터 피학자가 되어 있는 동료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주인공의 마음은 동료들 입장은 이해하지만 처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에 대한 이유도 드러난다.

“그런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비굴하게 슬슬 눈치나 본 단 말예요. 한 마디 불평도 못하고 연말에는 나오겠지, 스스로 구실을 만들어 위로를 삼고 자신들을 속이며 어슬렁어슬렁 물러가구. 도대체 구제할 수가 없어요. 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처자가 있는 친구들이 곤란한 입장에 처하

게 된다면 곁에 사람 처지들도 편할 수가 없겠지. 그래 쫓겨나더라도 단신인 내가 나서서 위인들 권익을 위해 싸워줄까하고 말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속으로 자기 권익을 지키고 싶어하기라도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나서겠어요. 하지만 뻔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그런 기미만 엿보였다 하면, 기회로구나, 점수로다 당장 사장에게로 달려가 자신의 충성심을 다짐하며 고해 바칠거 아닙니까.” (같은 책, pp.51~52.)

주인공의 말에 의해 동료에 대한 의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중력 없는 바위’라고 부를 때에는 무중력 상태의 무능력함을 떠올렸는데, 주인공은 동료 직원들에게서 가학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묵인하는 불공정한 처신에 회의감을 보이고 있다. 「굴레」의 주인공이 M일보사에 소속되지 못한 상태에서 입사시험의 부당함과 소외감으로부터 억압을 느낀다면 「보너스」의 주인공은 직장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사 조직 안에서도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굴레」의 주인공이 M일보사 선배를 찾아갔을 때 느낀 심정은 단일적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외면이 가능하지만, 「보너스」의 주인공이 동료들에게 느끼는 심정은 주기적이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다.

「굴레」에서 M일보사 면접관은 거대한 조직과 일체가 된 것이라면 「보너스」의 주인공은 조직과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굴레」는 거대한 조직의 권력이 소시민에게 가하는 가학이라면 「보너스」에서는 조직의 권력이 소시민에게 가하는 가학과 소시민이 소시민으로부터 느끼는 가학을 보여준다.

「굴레」의 주인공은 M일보사 입사시험 중 필기시험 후 입사를 단념하고 수험표를 찢어 버린다. 수험번호 467번이었던 주인공은 예기치 않게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을 보게 되는데 수험표를 찢어버려 곤란하게 되었다. 그때 같이 시험을 쳤지만 필기시험에서 낙방한 친구 S의 도움을 받아 466번이던 S의 수험표를 고쳐 면접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처럼 「굴레」에서는 입사경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돕는 인간

관계가 존재하지만, 「보너스」에서는 조직에서 협력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관계가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주인공이 동료들을 대표해서 보너스에 대해 항의하게 되면 동료들이 거꾸로 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주인공을 외면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동료를 신뢰하지 못하는 주인공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만능주의의 도래로 인해오는 인간관계의 소외감이 심화되어 나타나난다.

또한 「굴레」의 주인공은 면접 도중 정직하고 공손하게 대답하는 자신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대는 속이는데 정직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약해 보이고 비굴해 보여 싫다. 어차피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치르는 시험이라면 엑스트라가 되어도 당당하고 싶다는 정의감이 주인공의 가슴에서 올라온다.

결국 「굴레」의 주인공이 느끼는 가학은 신뢰할 수 없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가학을 포함한다. 「보너스」의 주인공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잡지사 사장으로부터는 신뢰관계를 바라지 않는다. 이미 주인공은 사장과 사원의 권력관계에서 갈등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 자본주의 조직체계 속에서 상하·주종·권력관계로부터 오는 인간관계에 주인공은 갈등을 반복하며 적응하였지만 직장 동료 내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불신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여전히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가해지는 부당함의 정도가 크다고 느낄 때에는 (가학의 정도가 가해지면) 주인공은 여전히 갈등을 보인다. 예로 주인공은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감시받지만 결과에 대해 아무 평가가 없는 사장으로부터 무언의 압박을 느끼지만 이에 대해서 항변하지는 않는다. 일하는 시간을 체크하고 관리 감독하는 사장의 방법이 치사하지만, 상하관계로 어쩔 수 없음을 감안한다. 하지만 보너스에 대해서 주인공의 생각은 다르다.

“하지만 미스김이나 나는 괜찮아요. 우리는 단신이니깐. 사무실 사람 중 장가들어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원체 보너스란게 없는 회사였더라도, 그래도 연말에 한 번 크리스마스쯤엔 그냥 지나지 않겠지 하

고 집에서들 은근히 기다릴 게 아닙니까. 그런데 다들 어떻게 집엘 들어갑니까. 세상에서 제일 못난 가장의 낯짝을 하구. 그런 입장두 사장님이 좀 생각을 해 줘야지요. 다른 사람들은 흥청망청 야단인데 이거 원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하면…… 그건 수 모지요, 수모. 그야 난 애시당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말을 하다 보니 내가 바로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된 것처럼 열이 나고, 나중에는 비감한 생각까지 들었다. 치사스런 감상에 젖어들어선 안 된다고 자신을 타일러보기도 했지만, 이미 속도를 얻어버린 냇두리 투가 체물에 자꾸만 다음 말을 끌어냈다.

미스 김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원칙을 따져 말한다면 요즘 보너스라는 것이 무슨 사장의 선심입니까? 사장 쪽으로 말하면 그건 의무예요. 우리 쪽으로 보면 당연히 받아낼 권리가 있는 거고…….” (같은 책, p.51.)

주인공은 보너스 지급이 사장의 의무이고 받는 것은 직원의 권리가 된 마당에 보너스를 주지 않는 사장은 직원들에게 수모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보너스를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사장에게 가학을 받고 있다. 또한 주인공이 참지 못할 부당함을 느끼는 진짜 가학은 돈의 액수보다는 부당한 대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너스에 대한 향변을 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동료들과의 불신관계에서 오는 가학 때문이다.

따라서 「굴레」와 「보너스」의 주인공이 받는 가학은 고용관계에 의한 가학과 수험생간 혹은 직장동료간 인간관계 사이의 가학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진다. 수직적 관계에서 오는 가학에 대한 저항은 수평적 관계에서 오는 가학으로 인해 통제받는 것이다. 「굴레」에서 보다 「보너스」에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굴레」나 「보너스」의 주인공은 권력의 가학으로부터 폭력성을 느끼고 불안 증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청준의 다른 소설의 인물처럼 심각한 병인형 인간이 되어 사회를 벗어나거나 도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패배감을 느끼지만 주인공의 시선은 여전히 사회를 향해 있다.

“하여튼 바위들이에요. 바위는 바윈데 중력이 없는 바위들. 이리 치면 이리 튀고, 저리 치면 저리 튀는 풍선처럼 똥똥 떠다니는 그런 바위 말예요.”

(같은 책, p.53.)

「굴레」의 주인공도 면접도중 정직하게 말한 자신을 후회하는데 속내를 들키는 것이 마치 약점이라도 잡히는 것처럼 느꼈다. 마찬가지로 「보너스」의 주인공도 동료 미스 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놓고는 곧 후회한다. 중력 없는 바위들에게서 무게감을 느꼈었던 경험이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비웃듯이 중얼거렸다. 그래도 마음속의 꺼림칙한 것이 가시지 않았다. 그 빌어먹을 바위들이 이젠 이상하게 두려운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바위들이 갑자기 제 무게를 찾아 거센 물결에도 움쩍도 않고 들어앉아 있는 모습들. 다만 어느 한 개의 바위만이 제 무게를 잃고 물결에 떠밀리며 이 바위 저 바위에 부딪혀대고 있는 꼴이다.

함께 똥똥 떠밀리고 있던 바위들이 갑자기 강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무겁게 주저앉아 버리는 환상-. 처음 그것을 경험 했을 때 나는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던가. 앞에서 내가 동료들의 앞장을 서려 나설 때 위인들이 취할 처신에 대해 그런 추단을 한 것도 사실은 그 때의 경험 때문이었다.(중략)

그러나 그 사건 때의 동료들의 태도에서 나는 그 바위들이 갑자기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뿌리를 박아버리는 환상들을 보았었다. 나는 그 우뚝우뚝 움직일 줄 모르는 바위들 사이를 혼자 이리저리 떠돌면서 부딪히고 튕겨나오며 깨어져 가고 있었다. 그런 광경이 내 머릿속에서 오래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그 환상이 내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같은 책, pp.53~54.)

회사를 그만둘 듯이 허세를 부리며 미스 김에게 직장 동료들을 중력 없는 바위라고 평가 절하하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미스 김과 헤어지고 나서 후회한다. 미스 김이 사장 딸의 친구라는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력 없는 바위라고 생각했던 직장 동료들이 주인공이 힘들어졌을 때는 뿌리를 내리고 무겁게 다가와 주인공 자신이 오히려 중력 없는 바위가 되어 홀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외롭고 두려웠던 기억이 선명해진 것이다. 주인공이 속내를 털어놓고 대화했던 미스 김을 도리어 불신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간관계 속의 불신으로 인한 소외감과 고독을 보여준다.

미스 김과 대화에서 나중 후회하지만 속내를 드러내고 대화를 이어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주인공은 직장동료들과 시원하게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인해 좌절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로 인한 경쟁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벽을 쌓고 현실에 소외받지 않고 안주라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상처받은 내면은 드러내거나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불안한 증세를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오줌 마려움으로)도출시키게 되거나 병든 심리를 숨기기 위해 일정한 증세(도박)로 해소시키기도 한다. 병든 심리를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는 증세보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 다른 증세로 해소시키는 것이 더욱 심화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굴레」와 「보너스」는 상황 설정과 작중인물 묘사에 있어서 인간소외와 고독, 물질만능주의와 새로운 위계질서가 보여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청준이 이 작품을 통해 당대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의미를 찾게 하는 작품이다.

### 3. 희망의 도피자

셋방살이 하는 현수는 사장과 아내의 전화를 동시에 기다리는 중이다. 전화는 주인 집 안방에 놓여있고 딸 선희도 안방에서 머리끄덩이를 끌리

고 있다. 선희가 안방에 가지 않았어도 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전화소리가 아닌 선희의 머리끄덩이가 당겨지는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현수는 콧잔등이 가려워지는 증세를 겪게 된다. 「가학성 훈련」의 상황 설정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오는 가학적인 상황을 한 상황 속에 잘 그리고 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사내와 아낙이 얼려 선희년의 머리끄덩질 놀이에 신이나 있었다.

“이러이러!”

“허, 그래, 이러!”

현수는 다시 콧잔등이 쫓깃겨려졌다. 이번에는 그 콧잔등으로 손까지 가져갔다. 그것은 현수의 근래의 버릇이었다.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선희년의 머리칼을 잘라버린 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바로 그 무렵부터 시작된 버릇이었다. (같은 책, p.86.)

현수는 부당한 관계에서 오는 가학을 받게 되면 코의 가려움증을 느끼는데, 현수의 코 가려움증에는 출처가 있다. 현수의 딸이 주인집으로부터 받는 가학에서 불현듯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다.

코 가려움증의 출처는 바로 현수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다. 주인의 딸이 선희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며 ‘이랴이랴’ 짐승 모는 소리를 냈을 때 현수는 아버지가 소의 코를 뚫어 굴레를 씌우고 굴레가 잘 씌워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랴이랴’ 소리와 함께 짐승을 몰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다.

짐승을 모는 소리인 ‘이랴이랴’는 중요하다. 이는 이중적이다. 안방 내외가 내는 소리에서 현수는 과거 아버지가 소의 코뚜레를 씌운 뒤 잘 씌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송아지를 몰며 내는 소리를 연상케 한다.

현수의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서 짐승에게 코뚜레를 씌워주는 일을 했지만, 정작 굴레를 쓰고 짐승과 함께 달리는 쪽은 아버지임을 묘사해 주고 있다. 아버지가 씌운 코뚜레는 짐승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코뚜레였던

것이다. 이 코뚜레를 현수의 딸 선희가 쓰고 있는 모습을 ‘이랴 이랴’하는 소리를 통해서 굴레의 대물림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현수의 딸이 머리끄덩이를 내어주는 것은 놀이와 같은 것이다. 선희가 하는 놀이의 보상은 과자부스러기이다. 선희는 아직 가학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상태지만 현수는 이 모습을 보며 가려움을 느낀다. 이는 현수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소 코뚜레 씌우는 일이 그에게는 썰매 타는 놀이로 인식된 것과 유사하다. 현수가 보이는 가려움 증세는 가학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치 선희는 굴레 쓴 짐승이 되어 있고 주인 딸은 선희를 모는 사람으로 현수는 연상한다. 이는 현수 자신이 쓴 굴레와 유사하다. 현수는 사장을 태운 짐승이 되어 사장의 ‘이랴 이랴’ 소리에 맞추어 달리고 있다.

“가자”

간단히 한 마디 명령할 뿐이었다. (중략)

“좀 더 속력을 내! 좀 더.” (중략)

“무얼 하건 참견 말구 시키는 대로 차나 돌려!” (같은 책, pp.89~90.)

차주 정 사장이 현수에게 하는 말이다. ‘이랴 이랴’라고 소리 내지는 않지만 현수에게 지시하는 말이 마치 ‘이랴 이랴’하는 소리와 같다. 현수가 차에 속도를 내게 하기 위해 채찍질 하듯 좀 더 속력을 내라고 명령한다.

숨돌릴 여유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현수는 아직 차를 돌리려 하지 않았다. 전날 밤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 느닷없이 그는 전날 밤 선희년의 그 괴상망측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러이러!……’ 그러자 그는 지금껏 그를 괴롭히고 있던 가려움증이 그의 몸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를 확연히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그의 콧잔등이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콧잔등의 굴레 자국이였다. 헐렁헐렁한 굴레가 그의 콧잔등을 못 견디게 간지럽혀 대고 있는 것이었다. 굴레-. 그렇다. 얼굴의 가려움증은 바로 그 거북스런 굴레 때문이었다. (같은 책, pp.90~91.)

결국 삼대 (아버지-현수-선희)는 같은 굴레를 쓰고 있다. 현수가 권력의 가학을 느낄 때 콧잔등이 가려웠던 까닭은 아버지가 짐승의 굴레를 씌운 코에서 비롯된다. 현수가 짐승이 되어 코에 구멍을 뚫리는 트라우마를 겪기 때문이다.

선희는 주인 집 딸로부터 굴레를 처음 썼다. 현수는 집에서는 주인 내외로부터 굴레를 쓰고 있고 직장에서는 차주 정 사장으로부터 굴레를 쓰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현수의 아버지도 마을 사람들의 짐승에 굴레를 씌워주며 정작 마을 사람들로 부터 자신이 굴레를 써 왔다. 현수 가족 삼대가 써 온 굴레는 소를 모는 쪽이 아니라 소가 되어 몰려가는 입장인 것이다. 현수가 자신이 쓴 굴레에 부당함을 느꼈을 때부터 현수의 코에 씌워진 굴레는 헐거워졌다. 헐겁게 씌워진 굴레는 짐승을 아프게 한다. 현수의 굴레도 현수를 아프게 함을 보여준다. 이는 신분제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라는 새로운 계층으로부터 온 것이다. 출처는 다르지만 형식은 같고 대물림되는 현상까지 같다. 이를 통해 현수의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현수는 콧잔등의 가려움증만 점점 더해 갔다. 이려이려, 그 우라질 놈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거나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면서 안면 근육을 심하게 실룩거리곤 했다. 슬그머니 콧잔등을 만져보기도 했다. 하다보면 이따금씩은 그 콧잔등이 다른 사람보다 깊게 패어 들어간 듯싶기도 했다. (같은 책, p.95.)

현수는 딸이 아직 어려 과자 부스러기에 흘려 머리털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셋방살이하는 현수네에게 제 감량을 하기위해서 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한다. 이런 인식은 선희가 더 이상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는 현수가 쓰고 있는 굴레가 딸에게 대물되어질까 걱정하는 불안으로 나타난다. 또 한편으로 고용에서 오는 불안감이 드러난다. 현수는 정 사장의 운전수 일을 하는 것이 헐거운 굴레를 쓴 것처럼 아프고 싫지만 이 일마저 잃을까 불안하다. 현수는 기다리는 전화는

사장이 출근하라는 전화가 아니라 그만 나오라는 전화일까 불안해하며 자신의 굴레가 헐거워진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

- 굴레 안 쓸 쇠새끼가 있다. 굴레 안 씌운 쇠짐승을 봐라. 그게 어디 쇠새끼 꼴인가. 쇠짐승이란 어쨌든 굴레를 씌워놔야 제 얼굴을 지니게 되는 게다.

하지만 그 굴레는 절대로 헐렁헐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단단하게 잘 매어진 굴레라야 한다고 했다.

- 굴레가 헐렁하면 소가 일을 잘 못할뿐더러, 녀석을 괴롭히기만 한다. 굴레란 꼭꼭 잘 잡아매 줘야 일을 하기도 쉽고 아프기도 덜한 법이다. 소를 부릴 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소를 아낀다는 뜻이다.

굴레란 사람이 씌워주는 물건이 아니라 쇠짐승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나온 신체의 한 부분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래 그렇게 되도록 해줘야 한다고.

그런 굴레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 자신의 굴레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처참한 얼굴은 자신의 굴레에 대한 사랑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과 공포의 모습이었다. (중략)

선희년의 머리칼을 잘라내버린 다음날 현수가 사장을 태우고 북악 스카이웨이를 달리다 문득 깨달은 가려움증의 정체는 바로 그 굴레의 자국이었던 것이다. 유전이었을까. 어느새 그 아버지의 굴레가 이번에는 현수의 콧잔등 위에서 헐떡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가려움의 증세는 그 원인이 확인됨으로써 좀처럼 사라지려고 하질 않았다. 그 전날 선희의 머리를 깎아버린 일이나 사내의 이려이려 소리까지도 차츰 잊어가고 있었지만, 콧잔등이 근질근질해 오는 그 가려움증만은 아버지의 기억과 함께 더욱 생생하게 느껴져 오고, 요즘 들어선 그게 아예 신경질적인 병벽이 되어가고 있었다. (같은 책, pp.94~95.)

아버지의 굴레에 대한 이야기에서 현수의 코 가려움증과 굴레에 대한 답이 풀린다. 현수의 아버지는 대대로 물려받은 짐승의 굴레를 씌우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자신이 벗지 못할 굴레임을 받아들인 것이다. 헐렁하면 소가 일을 못하고 아프기만 하는 이 굴레는 더 이상 짐승의 굴레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굴레가 되어 현수 앞에 새롭게 놓여 있다. 아버지가 짐승에게 꼭꼭 잘 매어 주었던 굴레는 결국 아버지가 자신의 굴레를

꼭꼭 잡아맨 것과 같다.

아버지가 쓴 굴레와 현수가 쓴 굴레는 비슷하지만 다르다. 아버지가 지고 온 굴레가 신분 사회로부터 내려오는 굴레라면 현수의 굴레는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오는 굴레이다. 이청준은 현수의 굴레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의 이상보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두 굴레의 출처는 다르지만 세습이라는 모양은 같다. 하나는 신분에 의해서, 하나는 자본에 의해서이다. 아버지가 결국 신분의 굴레를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는 운전사가 되어 고용주를 모시는 입장이 되어 있다. 현수의 딸은 셋방살이 굴레를 쓰고 머리끄덩이를 주인 딸에게 내어주고 있다.

신분사회로 인한 현수 아버지의 굴레는 사실, 아버지 스스로 쓴 것이 아니다. 현수는 스스로 운전사라는 굴레를 쓰고 자신의 굴레를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 벗지도 못한다. 어딜 가도 똑 같을 거라는 생각으로 주저앉는다. 이 모습은 자본의 유무가 또 다른 신분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더욱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더 끄들어. 더! 더! 힘껏! 그래 오웁지, 응! 이려이려 하면서 오웁지……!”

그러는 현수의 머리칼을 선회년은 신이 나서 마구 축축 채고 잡아당기고 했다.

“이려! 이려!”

현수가 시키는 대로 년은 신이 나서 대고 소리까지 질러대고 있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어 멀거니 부녀의 짓거리를 바라보고만 있던 아내의 핀잔소리를 듣고서야 현수는 비로소 흩어진 머리칼 밑에서 별경게 충혈된 얼굴을 들어올리며 아내를 쳐다보았다.

“응, 당신 왔어? 지금 이년 혼련을 좀 시키는 중야. 제법 야무진 걸!”

씨익 웃으며 한 마디를 하고는 다시 선회 앞으로 머리를 디밀어댔다. 그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어리둥절해진 안방 내외가 끝내는 배꼽을 쥐고 웃어대고 있는 줄도, 그리고 한동안 멍하니 그 꼴을 바라보고 서 있던 아내의 눈에 뽀얀 눈물이 서리는 것도 모르고 어린애처럼 계속 고향을 질러대고 있었다.

“끄들어! 어서! 오웁지 더 힘껏! 이려이려, 소릴 지르구……!”(같은 책, p.105.)

자신의 굴레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수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굴레에 불만족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쓴 굴레에 불안감이 들면 굴레는 헐거워지고 콧잔등은 가려워지는 것이다.

현수는 자신이 쓴 굴레의 대물림을 끊고 딸 선희에게는 가학 받는 굴레가 아니라 가학하는 굴레를 씌어주고자 한다. 그 역할을 할 줄 아는 딸을 만들기 위해 짐승이 되어 피학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딸에게 가학을 훈련 시키게 된다. 현수는 자신은 굴레를 벗지 못하지만 딸은 굴레를 벗기를 바라고 있다. 딸이 굴레의 대물림을 끊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현수 자신은 부당함에 직접 대항하지 못하고 회피할 수밖에 없지만 딸은 현수가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될 다음 세대가 된 것이다. 즉 딸은 현수의 희망의 도피처이다.

‘이라 이라’ 소리치며 짐승을 모는 놀이는 더 이상 놀이가 아니다. ‘이라 이라’ 소리는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없는 사람을 모는 소리가 되어 돌아온다. 현수가 선희에게 가학성 훈련을 시키는 모습은 피학자의 입장을 벗어나 가학자가 되기를 염원하는 모습이다.

「가학성 훈련」은 가학의 굴레를 쓴 자는 이 굴레를 대물림하고 피학자의 굴레를 쓴 자는 이 굴레를 대물림하게 됨을 거부하고 피학자의 탈을 벗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소설이다. 이청준은 소설을 통하여 가학과 피학의 대물림 순환을 반복하는 우리 사회와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굴레」, 「보너스」, 「가학성 훈련」의 사회적 약자는 권력자에 의해 억압이 가중될 때 각각 오줌 마려움, 도박, 코 가려움 증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약자 유형의 인물이 권력자들의 억압에 좌절하여 실패자로 보이지만 가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의 결말에 뚜렷한 해결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권력자로부터 탈출이 실패했다고 보이지만 사실상은 실패한 것은 아니다. 부당함에 항변함으로써 침묵으로 일관하는 권력자들에게 답을 요구하거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대화를 이어나가거나 또 불가항력으로 다가오는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권력

자의 역할 연습을 함으로 각자 대항하고 있다.

이청준은 세 작품을 통해 일상을 많이 닮아있는 억압받는 인물들이 권력에 의해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지만 각각의 인물 묘사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이청준 소설 「굴레」, 「보너스」, 「가학성 훈련」을 중심으로 작중인물을 가학적인 권력자와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 유형으로 나누고, 서로의 상관관계 속에서 인물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권력자들이 보이는 가학의 형태는 침묵으로 나타난다. 「굴레」의 M일보사 시험관들이 수험생을 통제하는 방법은 자신들이 원하는 역할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항의를 제한하고 있다. 신문사의 질서 속에 규격화되어 절제된 행동을 보이는 역할 모델은 더욱 억압된 침묵을 통해 수험생들을 통제하고 있다. 잡지사 사장의 침묵은 직원들의 경쟁의식과 소외감을 이용하여 회사의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한편, 차주 정 사장은 침묵의 가학보다 좀 더 직접적인 혼잣말로 현수를 가학한다.

「보너스」의 침묵은 가학에 대항하는 약자들로부터 책임 회피와 지식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신문사와 잡지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학보다, 「가학성 훈련」의 할 줄 아는 것이 운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현수에게 가해지는 가학이 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 모습을 통해 지식인이 침묵의 가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비지식인보다 직접적인 가학에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력자의 가학은 약자가 이를 인식함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위의 작품들에서 사회적인 약자로 나타나는 주인공들은 권력자들의 가학의 형태인 침묵에 불신감을 갖는다.

「굴레」의 주인공은 사칙과는 다른 기준을 통해 수험생들을 선발하면서 진짜 선발 기준에 대해 침묵하는 시험관들에게 불신감을 갖는다. 「보너스」의 주인공은 보너스에 대해 침묵하는 사장에게 불신감을 가지며 불신은 서로 속내를 말하지 않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도 나타난다. 「가학성 훈련」의 현수도 혼잣말로 현수에게 가학함을 인식시킨 후 침묵하는 차주

를 불신한다. 세 인물은 권력자의 가학을 인식할 때 각각 오줌 마려움, 도박, 코 가려움 증세가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주인공들의 다른 점은 사회적 지위이다. 아직 취업이 전으로 사회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굴레」의 주인공은 항변하지만, 직장인인 「보너스」, 「가학성 훈련」의 주인공은 항변하지 못한다. 항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책임 때문이다. 「보너스」와 「가학성 훈련」에서는 가정에 대한 책임으로 나타난다. 또한 현수가 어딜 가도 운전수라는 말에서, 개인이 소유한 자본에 따라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대항하는 방법의 차이도 보여주고 있다.

인물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가학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로부터 사회적 부조리가 나타나고 있다. 소설에 나타나는 사회적 부조리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관계 속에 얽혀 가정 안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지위로부터 가정 안으로 들어온 가학관계는 이청준의 소설 「가면의 꿈」에서는 심층적으로 나타난다. 「가면의 꿈」은 자본이 아니라 소외된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진실이 없는 관계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불신은 타인과의 관계를 이룰 수 없게 됨을 보여준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외감과 고립, 고독의 심화된 모습이다. 이 현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살펴보면 「굴레」, 「보너스」, 「가학성 훈련」에 나타나는 거대한 빌딩의 조직체와 자본으로 인한 계층분화와 사회적인 박탈감과 불공평한 시대의 움직임으로부터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본 세 편의 소설은 산업화로 인해 배태되는 진실하지 못한 관계에서 오는 소외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보여준다. 작중인물은 4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조차 공감할 수 있는 현대성을 보여준다. 요즘 세대에서도 취업난은 취업준비생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부가하여 자살로 이어지게 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물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직장 내에서 겪는 관계의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태반이며 가정을 둔 가정들은 가족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청준의 소설은 자본주의 체제가 가져올 문제점을 자본주의 초기적 인물

을 통해 드러냄으로서 원인규명과 해결점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찾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가가 이 세 작품을 쓴 때로부터 반세기 가량 지난 오늘날도 우리는 같은 문제 아래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청준 소설의 인물유형 분석을 통하여 시대를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이청준은 소설의 인물을 통하여 시대적인 산물을 담아내고 독자로 하여금 시대를 돌아보게 하고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이청준, 『이청준 문학 전집3』, 열림원, 2002.

### 2. 단행본

권택영, 『후기 구조주의 문이론』, 민음사, 1990.

김병익, 『상황과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92.

김진기 외, 『문학으로 사회읽기』, 박이정, 2003.

김치수 외, 『이청준론』, 삼인행, 1991.

김치수,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김치수 외, 『한국문학의 지평』, 새문사, 1981.

김현, 『문학과 유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1992.

김현 외, 『현대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2.

김현 외, 『현대 한국문학의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2.

오생근, 『삶을 위한 비평』, 문학과 지성사, 1978.

이상섭, 『언어와 상상』, 문학과 지성사, 1984.

이상우, 『현대소설론』, 양문각, 1993.

장수익, 『1960년대 문학 연구』, 예하, 1993.

조남현, 『소설신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조미숙, 『현대소설의 인물묘사 방법론』, 박이정, 1996.

게오르크 루카치,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5.

미셸 제라파, 이동열 역, 『소설과 사회』, 문학과 지성사, 1997.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2003.

미셸 푸코, 박혜영 역, 『정신병과 심리학』, 문학동네, 2002.

존 홀, 최상규 역, 『문학사회학』, 혜진서관, 1987.

### 3. 잡지간행물

천이두, 「작가적 변모와 문제」, 《한국문학 65호》, 1979.

한상규, 「다양한 표정의 소설세계에 대한 다양한 비평」, 《작가세계》, 1992.

### 4. 학위논문

고관섭, 「이청준 소설의 작중인물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고귀옥, 「이청준 소설 작중인물의 정신병적 징후와 문학적 의미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김수연, 「이청준 소설의 인물 유형분석을 통한 현실비판 양상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이선미, 「이청준 소설의 인물유형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안홍현, 「이청준 소설의 인물유형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이경옥, 「이청준 소설의 인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이우석, 「이태준 단편소설에 나타난 인물유형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이지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 소설 인물유형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박영주, 「이청준 소설의 인물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추순혜, 「이청준 초기소설 인물형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Abstract>

A Study of the characters  
in Lee Cheong-Jun's early short novels

Heo Jun-Young

Major in Kore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dvisor prof. Moon Sung-Sook

In this study, a novel Lee Cheong-Jun's 「Bridle」, 「Bonus」, 「Sadism training」 to divide the types of people targeted to socially disadvantaged and oppressed the powers that were sadistic research.

Sadistic form of powers carried out under the capitalist system appears to be silent to avoid responsibility. Powers that are out to the social order stands in silence to create the organization. Capital is coming from abusive relationships, even within the home affects the capital patrimony to create a new layer. The author has been accused by the absurdity of such a society novel.

Control and repression of socially disadvantaged groups capitalist system has created huge power seems a constant feature. When each of the main characters are feeling ill sadistic pee Do not fear, gambling, nasal itching symptoms will appear.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status of this study it has been found that the degree is different abusive. Also, it does not get suppressed low social status is responsible heavier against the tyranny of power. This phenomenon is not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authors examined the conscious desire to be considered in social terms.

The authors consider the appearance of consciousness through sadistic party and the victim according to different social status had been looking for the implication to modern man.